



저작자표시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문학석사 학위논문

영어와 관련한 국어 로마자 표기 실태



2012년 2월

부경대학교 대학원

영어영문학과

임 형 욱

문학석사 학위논문

영어와 관련한 국어 로마자 표기 실태

지도교수 배 재 덕

이 논문을 문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2년 2월

부경대학교 대학원

영어영문학과

임 형 욱

임형욱의 문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2년 2월



주 심 언 어 학 박 사 김 은 일 (인)

위 원 문 학 박 사 배 재 덕 (인)

위 원 언 어 학 박 사 한 지 원 (인)

목 차

Abstract	iii
----------------	-----

I. 서론	1
-------------	---

1.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
------------------------	---

1.2 연구과제	2
----------------	---

II. 로마자 표기의 이론적 배경	4
--------------------------	---

2.1 영어의 로마자 표기	4
----------------------	---

2.2 국어의 로마자 표기	7
----------------------	---

2.3 영어와 국어의 로마자 표기상의 연관된 문제	14
-----------------------------------	----

2.3.1 영문 표기와 관련된 문제	14
---------------------------	----

2.3.2 음절구조상의 문제	20
-----------------------	----

2.3.3 실제 발음과 표기 관련 문제	23
-----------------------------	----

III. 영어 표기와 관련한 국어 로마자 표기 사례별 분석	27
--	----

3.1 국내인명	27
----------------	----

3.1.1 자음의 경우	30
--------------------	----

3.1.2 모음의 경우	33
--------------------	----

3.2 안내표지판	36
-----------------	----

3.2.1 자음의 경우	37
--------------------	----

3.2.2 모음의 경우	43
--------------------	----

IV. 결론	50
--------	----

참고문헌	52
------	----

부록1	54
-----	----

부록2	74
-----	----



Korean Romanization System Practices
related to English
Hyeong-uk Im

Department of English Literature
Graduate School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is paper is to review the use of the Korean Romanization System. This system is based on a group of individuals names, numerous cultural properties, enterprises, banks, and the names of newspaper publishing companies for a 6 sample survey.

The findings are as follow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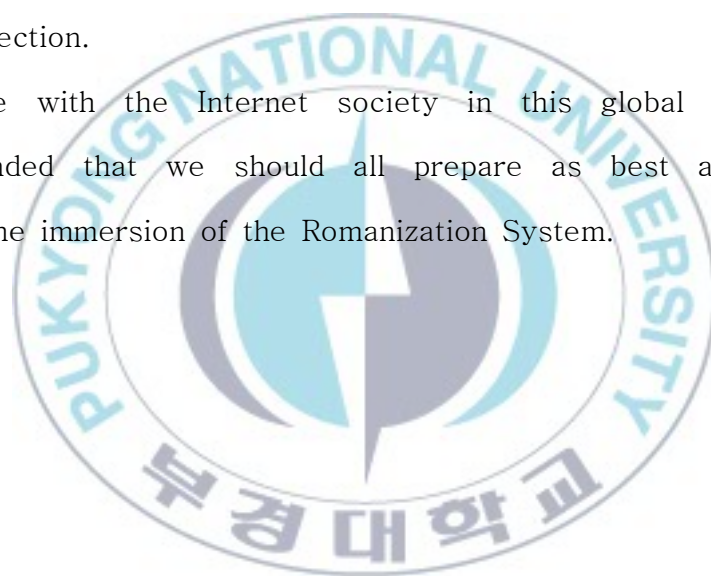
1. As Appendix shows the name of the streets resulted in 100% being correct in this system as it has been led by governmental experts.
2. The person's name in Korean has also been shown to have a 20% similarity to the English alphabet. There is a mixture between Korean and English in this system. This is influenced by the studying level of English pronunciation fluency and spelling

fluency from elementary school to university.

3. The names of the enterprises, universities, the banks, and private companies are shown to have the English alphabet as part of this system.

Even though it has been about 10 years since the law of the Romanization systems which begun for the introduction of the existence and eventual mastery of this language is still a long way from perfection.

To cope with the Internet society in this global age, it is recommended that we should all prepare as best as possible through the immersion of the Romanization System.



I. 서 론

1.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세계의 대부분의 국가가 로마의 문자를 사용하고 그 표기는 각 나라의 발음에 따라 달리함으로써 로마 문자는 동일하더라도 각국의 발음에 따라서 그 문자의 사용은 달리하고 있다.

영어의 로마자 표기는 영어 발음에 따라서 그 특성에 맞게 적절하게 문자 표기를 하는 것이고 국어의 표기는 국어 로마자 표기법 제 1장 제 1항 「국어의 로마자 표기는 국어의 표준 발음법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문자는 로마자를 사용하되 그 표기는 우리말의 발음에 따라 적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영어를 학습하고 영어의 사용이 일상화됨에 따라서 국어 로마자 표기법이 2000년 7월 7일부터 공포되어 시행되고 있지만은 거리의 로마자 문자 표기나 각자의 성명을 로마자로 표기하는 데 있어서 영어식 표기가 성행하고 이 국어 로마자 표기법이 시행되고 있는 것조차도 잘 인식하지 않고 영어식 표기를 각자의 이름을 쓰는 데 있어서 당연시 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인명, 문화재명, 기업체명, 대학명, 은행명, 신문사명 등의 로마자 표기를 표본 조사하여 국어 로마자 표기법의 사용에 있어서

영어식 표기와 혼동 여부에 대한 사용 실태를 조사. 분석하여 국가가 법으로 공포하고 한국인과 외국인들이 국어의 발음에 따라서 올바른 로마자 표기와 그 개선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1.2 연구과제

연구과제 1.

인명에 있어서 자음과 모음으로 분류하여 자음에 있어서는 4개 항목 ① 모음 앞의 「ㄱ」을 g아닌 k로 표기하는 경우, ② 「ㅅ」을 s가 아닌 sh로 표기하는 경우, ③ 「ㅈ」을 j아닌 ch로 표기하는 경우, ④ 「ㅂ」을 b아닌 p로 표현 하는 경우의 네 가지로 나누고, 모음의 경우는 ① 「ㅣ」를 i아닌 ee로 표현하는 경우, ② 「ㅜ」를 u아닌 oo로 표기하는 경우, ③ 「ㅓ」를 eo가 아닌 u로 표현하는 경우, ④ 「ㅛ」를 yeo가 아닌 you로 하는 영어식 표기와 국어 로마자 표기를 비교. 분석한다.

연구과제 2.

안내표지판에 있어서 자음과 모음으로 분류하여 자음에 있어서는 ① 모음 앞의 「ㄱ」을 g아닌 k로 표기하는 경우, ② 「ㅅ」을 s가 아닌 sh로 표기하는 경우, ③ 「ㅈ」을 j아닌 ch로 표기하는 경우, ④ 「ㅂ」을 b아닌 p로 표현 하는 경우의 네 가지로 나누고, 모음의 경우는 ① 「ㅣ」를 i아닌

ee로 표현하는 경우, ② 「ㅓ」를 u아닌 oo로 표기하는 경우, ③ 「ㅜ」를 eo가 아닌 u로 표현하는 경우, ④ 「ㅠ」를 yeo가 아닌 you로 하는 영어식 표기와 국어 로마자 표기를 비교, 분석한다.

본 연구의 구성은 제 1장에서의 서론은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과 연구 과제로 구성하고 제 2장에서는 국어와 영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대한 이론적인 배경과 그 내력을 기술하고 제 3장에서는 국내인명과 안내 표지판에 있어서 각각 자음과 모음 4개 항목에 걸쳐서 국어 로마자 표기를 영어식 표기와 비교, 분석, 해석한다.

제 4장에서는 그간 비교 분석한 것에 대하여 결론과 제언을 한다.



II. 로마자 표기의 이론적 배경

2.1 영어의 로마자 표기

영어의 로마자 표기는 B.C 57년에 Ceasar가 이끄는 로마 군대가 Britain섬을 정복하여 로마 군대가 근 400여년 간 통치를 하고 A.D 410년에 철군할때까지 Britain섬의 사실상 주인은 로마사람들이었다. 이들은 주둔지 각 지역, 특히 England 남동부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광범위한 방어망을 구축하면서 Britain섬에 영주할 것을 염두해 두고 방어망을 구축하고 그 표시를 자기들이 쓰는 문자인 로마자로써 표기하기 시작했다.

그 뒤에 로마 군대는 Germanic족의 한 부족인 Jutes족의 족장 Hengest와 Horsa가 A.D 449년에 Kent지방의 Britain섬에 로마 군대를 몰아내고 상륙함으로써 오늘날의 영어의 선조인 Old English의 첫발을 내디디게 되었다.

로마 제국은 그 당시로서는 Britain섬 뿐만 아니라 전 유럽을 통치하는 제국으로서 로마 제국이 쓰던 문자는 사실상 전 유럽, 나아가서는 현대사에서는 전 세계가 각 나라의 발음에 따라서 문자로서 표기는 로마자로서 하는 것이 일상적이 되었다.

Germanic의 일부 부족인 Angles, Saxons, Jutes족들은 말은 Anglo-saxon어를 사용하여 이 Anglo-Saxon어가 오늘날 영어의 첫 조상어였다. 이 Anglo-Saxon어는 문자 표기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문자를 로

마자를 그대로 원용했으나 그 당시 유럽에 전반적으로 사용했던 Rune문자에서 자음 세 개를 사용해 빌려 쓰고 그 뒷날에 불어에서 도입된 q, z, v, j등 네 개의 자음을 불어에서 도입하여 영어 발음에 사용되어서 오늘날에 이르렀다.

모음 문자는 로마자의 a와 e가 합하여 고기영어(Old English, Anglo - Saxon(A.D 450-1150) 이하 OE라고 약칭함) 시기에 æ를 사용하고 그 이외에는 로마자 모음 문자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고기영어 시대에는 영어의 로마자 철자와 발음이 거의 일치하여 표음 문자 본래의 취지대로 발음되었다. 그러나 중기영어(Middle English, A.D 1150-1500, 이하 ME라 약칭함)에 와서 불어의 영향으로 불어식 발음이 영어 철자에 많은 영향을 줌으로써 특히 자음에 있어서 철자와 발음이 대단한 혼란을 겪었으며, 근대 초기 영어(Early Modern English, A.D 1500-1650, 이하 EME라 약칭함)에서는 모음에 있어서 큰 변화(Great Vowel Shift)를 겪으면서 특히 장모음에 있어서는 이중 모음화하여 모음에 철자와 발음이 크게 차이가 나타남으로써 이제는 영어의 철자는 표음 문자를 자칭하던 시대는 종말을 고하고 영어는 본래 로마자를 사용하여 발음과 철자가 일치하던 시대는 끝나게 된다.

후기 현대 영어(Late Modern English, A.D 1650-1800, 이하 LME라 약칭함)에서는 초기 근대 영어에 있어서 영어 철자와 발음의 괴리 현상을 최소화 하려는 여러 가지 시도가 있었지만 1476년 William Caxton이 영국 런던에서 처음 인쇄술을 영어에 도입하여 그 당시 영어 철자로 영어를 인쇄하여 런던 영어를 영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보급하게 됨에 따라서 철자는 책속에 문자로써 영원히 고정되고 그 이후에도 발음은 계속 변화되

어 영어는 발음과 철자를 학습하지 않으면 철자로 적기에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Baugh, A.C. & Cable T. 2002. 「A History of the English Language」)

오늘날 우리 한국 초. 중. 고. 대학생들이 영어를 학습함에 있어서 철자와 발음이 상이한 영어식 발음법에 따라 철자를 사용하게 된다. 현재 한국의 학생들은 발음과 철자가 완전한 일치가 되는 고기 영어 시대의 영어를 학습하는 것도 아니고 현대 영어는 철자와 발음이 상이한 형태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영어의 로마자 표기는 영어의 발음에 일관성이 없는 철자를 사용하고 있다. (배재덕, 2010, pp38-48, 115, 190-193)

현재 한국 학생들은 주로 영어 발음에 익숙한 로마자를 각자의 이름이나 여러 상호 등에 사용함으로써 국어 로마자 표기법을 한국인의 발음에 따라 표기하지 않고 학교에서 학습한 영어 발음에 상응하는 로마자 표기를 함으로써 국어 로마자 표기의 보급에 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

동일 로마자를 국어와 영어의 그 발음에 따라 적는 것을 혼동하는 사례가 안내 표지판이나 인명이나 각종 상호명 등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2 국어의 로마자 표기

지난 6차에 걸친 로마자 표기법들의 명칭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① 한국어의 머쿤 라이샤워 표기법 (1939), ② 朝鮮語羅馬字表記法 (1940), ③ 한글을 로마자로 적는 법(1948), ④ 한글의 로마자 표기법 (1959), ⑤ 국어 로마자 표기법 (1984), ⑥ 국어 로마자 표기법 (2000) 과 ⑦ 남. 북한의 한글 로마자 표기 합의(안) 등의 명칭을 사용하였다. 사용 명칭 상 한글 로마자 표기법의 명칭을 사용한 경우는 ③, ④, ⑦의 경우이고, 우리말의 로마자 표기법 명칭은 ①, ②, ⑤, ⑥의 경우이다.

명칭 상 한글 로마자 표기법과 국어 로마자 표기법은 실제 시행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그 내용이 전혀 달리 적용될 수 있다. 한글의 로마자 표기법은 한글 문자와 로마자 문자의 고정된 대응 문자로써 표기를 하는 경우이고, 국어 로마자 표기법은 현행 로마자 표기법 제1항과 같이 국어의 표준 발음법에 따라 로마자를 적는다. 이것은 전문가가 아닌 일반 내.외국인이 실제 사용을 할 때는 국어의 발음법을 잘 숙지하지 않으면 바른 표기를 할 수 없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표기라고 할 수 있다.

상기와 같이 6차례의 표기법 개정안 중에서 3차례는 한글 로마자 표기법의 명칭을 사용하고 4차례는 국어 로마자 표기법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나 실제 각 표기법의 내용을 보면 모음에 있어서는 1문자(조) 대 1표기로 거의 정착화 되어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에 자음에 있어서는 명칭을 한글 로마자 표기법이라고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 표기에 있어서는 1문자(조) 대 1표기의 대응체계로써 표기가 이루어지지 않고 각각의 국어 자음 발음의 음성 환경에 따라 그 표기를 달리 함으로써 일반 사용인들

은 표기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화와 인터넷 시대에 국어의 로마자 표기는 생활의 한 부분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그러나 국어의 발음상 음운변화는 국어 어문 전문가들 이외에 보통 사용인들은 그 음운 변화의 결과를 알고 있는 사람은 고등 교육을 받은 사람도 일상생활에 자신들이 매일 사용하는 국어이지만 실제로 음의 동화작용의 결과로 나온 음의 변화는 잘 숙지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와 같은 시대의 현실에 부응하는 표기 체계는 어문 전문가들의 전유물이 아닌 실 사용자들이 쉽고 예측 가능한 표기법의 개발이 절실한 시점에 왔다고 본다. 로마자 표기는 문자 매체로써 한글 문자를 로마자화 하여 대체 문자로써 활용한다는 관점에서 재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로마자 표기법의 명칭은 ‘한글의 로마자 표기법’으로 하고 문자 대 문자 대응 체계로 표기법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아래에서 남.북한 단일 한글 로마자 표기(안)를 조사하여 보면 예시1과 같다.

예시 1은 1992년 6월 16, 17일 이틀 간 파리 소재 프랑스 표준 협회 (AFNOR)회관에서 열린 제 5차 ‘기계화를 위한 한글의 로마자 표기법에 관한 남. 북한 회의’에서 남. 북 양측의 쌍방 제안을 절충시킨 단일 표기법 (안) (1992.6.18)이다. 위 회의에서 양측은 자음의 경우 북한 측 (안)을, 모음은 한국 측 (안)을 수용하는 절충안에 합의했으며 이를 국제 표준화 기구(ISO: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Organization)에 공식 제출하였다.

남북 한글 로마자 표기 합의가 가진 의미는 지난 85년 ISO로부터 로마자 표기 방법에 대한 규격 초안을 제출해 달라는 요청에 따라 수년간 협상

을 벌여온 결과이다. 그간 남. 북의 표기상 차이로 무질서한 로마자 표기가 행하여짐으로써 한국의 국제적 자료 전산화와 축적 작업에 차질과 혼선을 가져온 것이 사실이다.

예시1: 남. 북한의 단일 합의안

19개 자음				21개 모음			
ㄱ	K	ㅈ	C	ㅏ	A	ㅑ	YA
ㅋ	KH	ㅊ	CH	ㅓ	EO	ㅕ	YEO
ㄲ	KK	ㅉ	CC	ㅗ	O	ㅛ	YO
ㅌ	T	ㅍ	S	ㅜ	U	ㅠ	YU
ㅍ	TH	ㅑ	SS	ㅡ	EU	ㅞ	YAE
ㅌ	TT	ㅎ	H	ㅣ	I	ㅟ	YE
ㅍ	P	ㅇ	NG	ㅘ	AE	ㅚ	WA
ㅍ	PH	ㄴ	N	ㅙ	E	ㅜ	WEO
ㅍ	PP	ㄹ	R	ㅛ	OE	ㅞ	WAE
		ㅁ	M	ㅜ	WI	ㅟ	WE
						ㅚ	YI

이 한글 로마자 표기 단일안이 ISO이사국을 통해 국제 규격으로 확정되면 국제적으로 표기상 혼란이 해소되고, 해외에 있는 각종 한국자료의 전산 축적이 명료해지며, 한국에 관한 정보에 접근하기가 훨씬 용이해질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 단일안이 계기가 되어 ‘교과서 내 외래어 표기’, ‘각종 표지판 통일 위한 실무자 회의’, 그리고 어문학 분야에서 한글 학자들 간의 모임 등 관련 부문에서의 남북 접촉이 활발해질 것을 기대하였다. 그러나 남북한의 정치적인 경색 등 여러 문제로 인해 실질적인 관계 전문가들의 남북 회동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후 공식적인 잔존 사항은 보고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남. 북한 단일 한글 로마자 표기(안)은 하나의 문자체계에서 다른

문자체계로 전환 할 때에 「1음운 1기호의 표기를 원칙으로 한다.」(김명숙: 394)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 안이 남북한이 동시에 시행되었을 때를 가상하여 보면 과거 한국에서 여섯 차례에 걸친 표기법 중에서 실제사용자들의 표기예측성을 감안하면 가장 바람직한 로마자표기법으로 사려된다.

상기 7개의 표기법들의 내용면을 조사하여 보면 실제 사용된 로마자 표기는 한글자음 19개와 모음 21개였다. 그러나 (안)을 달리할 때 마다 표기 변경에 사용된 모음자는 9개, 자음자는 14개로 조사되었다. 예시 2,3은 이들을 대조한 것이다.

모음자 표기에 있어서, 로마자의 모음자는 5개(a, e, i, o, u)인 것에 비해, 한글 모음자는 19개가 있다. 한글모음자 중에서 10개는 로마자의 조합에 의해서 별 무리 없이 표기가 정착되어 왔으나, 예시 2에 열거한 9개의 문자는 최초의 MR 표기법을 근간으로 개정 때마다 표기가 바뀌곤 하였다.

예시 2: 한글 모음자의 로마자 표기 대조 일람

한글모음	① MR	②'40	③'48	④'59	⑤'84	⑥'00	⑦ 남북한 ('92)
ㅏ	o	ö	ö	eo	ö	eo	eo
ㅑ	yö	yö	yö	yeo	yö	yeo	yeo
ㅓ	ü	ü	ü	eu	üi	eu	eu
ㅕ	i	i, yi	i	i	i	i	i
ㅗ	ae	ě	ai	ae	ae	ae	ae
ㅛ	yae	yě	yai	yae	yae	yae	yae
ㅜ	wae	wě	wae	wae	wae	wae	wae
ㅠ	wö	wö	wö	weo	wo	wo	weo
ㅡ	üi	üi	üi	eui	üi	ui	yi

개정 된 세부사항을 살펴보면, 초기 MR표기법에서는 1음운 1기호의 표

기 원칙에 따라 특수 부호를 사용하여 한글 ‘ㅓ’를 ‘ø’로 ‘ㅕ’를 ‘yø’로 표기하였다. 이 후 1959년 표기법에서 특수 문자를 없애고 각각 ‘eo’와 ‘yeo’로 사용하다가, 1984년에 다시 특수 기호로 회귀하였다. 그러던 것이 현 표기법과 남.북한 단일 표기법에서는 특수 기호 대신 로마자 e를 채택하고 있는 바, 이는 국제화, 정보화 시대에 PC 전산 입력과 취급에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생각된다.

양 측이 구개음화된 모음 표기에 ‘y’자를 「ㅕ, yeo; ㅠ, yo」로 일관되게 사용하고 있다. 그 간 우리 측이 가장 혼선과 어려움이 있었던 ‘ㅡ’의 표기와 ‘ㅣ’의 표기는 ‘eu’와 ‘ui’로 일관성 있게 표기하고 있으나 ‘ㅣ’의 경우 현 표기법은 ‘ui’, 남북한 단일안은 ‘yi’인 점은 아쉽다. 그러나 우리 측이 지난 다섯 차례에 걸친 한국의 표기 수정안을 비추어 볼 때, 현 표기법이 채택한 ‘ui’로 정착 되었으면 한다.

모음자 표기에 있어서는 우리 측의 여섯 차례의 표기법이나 남북한(안)의 표기법을 전반적으로 조사, 분석하여 보면 지속적으로 한글 1문자(조) 대 로마자 1문자(조) 표기로 한글 ‘ㅓ’, ‘ㅡ’, ‘ㅣ’등 3개 글자에서 로마자를 표기하는 데 개정시기마다 문자(조)의 변동이 있었으나 나머지 한글 모음자의 로마자 표기에서는 사용자가 예측성을 가지고 로마자 표기를 할 수 있게끔 기계적으로 고정 표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화 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시 3: 한글 자음자의 로마자 표기 대조 일람

한글자음	①MR	②'40	③'48	④'59	⑤'84	⑥'00	⑦남북한 (92)
ㄱ	k, <i>g</i>	g	k	g	k, <i>g</i>	g	k
ㄷ	t, <i>d</i>	d	t	d	t, <i>d</i>	d	t
ㄹ	r	r, l	r, l	r	r	r	r
ㅂ	p, <i>b</i>	b	p	b	p, <i>b</i>	b	p
ㅅ	s, sh	s	s	s	s, sh	s	s
ㅈ	ch, <i>j</i>	z	ch	j	ch, <i>j</i>	j	c
ㅊ	ch'	cz	chh	ch	ch'	ch	ch
ㅋ	k'	k	kh(k')	k	k'	k	kh
ㅌ	t'	t	th(t')	t	t'	t	th
ㅍ	p'	p	ph(p')	p	p'	p	ph
ㄲ	kk	gg	gg	gg	kk	kk	kk
ㄴ	tt	dd	dd	dd	tt	tt	tt
ㅃ	pp	bb	bb	bb	pp	pp	pp
ㅆ	tch	zz	dch	jj	tch	jj	cc

※어두자음 (이탤릭체는 모음 앞이지만 어두(語頭)가 아닌 경우에 사용하는 글자임)

예시 3은 남북한 단일안과 우리 측이 6차례에 걸쳐 사용한 자음 표기를 대조한 것으로써, 흔히 로마자 표기를 영어 알파벳 표기로 오인하여 사용되기도 하는 'f, v, q'등을 제외하고, 실제 사용되는 14개의 로마 자음자만을 활용한 자음 표기 대조이다.

최초 MR표기법에서는 유성음(voiced sound)과 무성음(voiceless sound)으로 구분하여 한글의 'ㄱ, ㄷ, ㅂ'을 음의 위치에 따라 각각 'k'와 'g', 't'와 'd', 'p'와 'b'의 두 개 로마자를 사용했다. 또한 'ㅈ', 'ㅊ', 'ㅍ'의 경우, 기음(aspiration)을 의식하여 특수 기호(apostrophe, 어갯점)를 붙여서 'ch', k', p'로 사용하였다.

'84년 표기법(이하 직적표기법으로 명명)에는 유. 무성음을 구분 하여 'k'와 'g',

‘t’와 ‘d’, ‘p’와 ‘b’로 표기하였으나, '40년, '59년 표기법과 현 표기법에서는 이들 글자를 ‘인도. 유럽어계와 달리 한국어의 자음에 있어서는 유. 무성음 구분이 없다’라는 원칙에 따라서 단일 문자 ‘g, d, b’로 표기 하고 있다.

그 외에도 ‘ㄹ’의 표기는 MR표기법에서 ‘r’로 표기하던 것을 '40년과 '48년 개정안에서는 ‘r’과 ‘l’ 두 문자를 사용하다가 '59년 표기부터 현재까지 대응 표기로 ‘r’를 채택하고 있다. ‘ㅅ’의 경우에는 MR표기와 '84년 표기에서 ‘s’와 ‘sh’로 구분 표기하다가, ‘s’단일의 대응 표기를 현재까지 고정 표기하고 있다. 그 외에도 ‘ㄴ’의 표기는 MR표기법에서 ‘r’로 표기하던 것을 '40년과 '48년 개정안에서는 ‘r’과 ‘l’ 두 문자를 사용하다가 '59년 표기부터 현재까지 대응 표기로 ‘r’를 채택하고 있다. ‘ㅅ’의 경우에는 MR표기와 '84년 표기에서 ‘s’와 ‘sh’로 구분 표기하다가, ‘s’ 단일의 대응 표기를 현재까지 고정 표기하고 있다. ‘ㅈ’역시 MR표기법에서 위치에 따라 ‘ch’ 또는 ‘j’로 표기하다가 ‘z’, ‘ch’, ‘j’, ‘c’등으로 혼용하던 것을 현 표기법에서는 '59년 표기법에서와 같이 ‘j’로 표기하고 있다.

된소리 글자 ‘ㄲ’, ‘ㄸ’, ‘ㅃ’, ‘ㅆ’은 '40년, '48년, '59년에는 유성 자음자 ‘gg’, ‘dd’, ‘b’와 ‘zz(dch)’등을 사용하였고, MR안, '84년, ‘남북한(안)과 현 표기법’에서는 무성음 겹글자 ‘kk’, ‘t’ ‘p’ ‘j’로 사용하고 있다.

예시 3에서 본 바와 같이 현 표기법에서는 명시적 조항은 두지 않았지만, 글 자음자의 로마자 표기에 있어서 「1음운 1기호 표기 원칙, 1한글 자음자(조) 1로마자 자음자(조) 표기원칙」을 준수하려는 노력이 곳곳에서 나타나있다. 이 원칙이 견지 되었을 때 사용자들은 예측성을 가지고 일관성 있게 로마자 표기에 임할 것으로 사료된다.

2.3 영어와 국어의 로마자 표기상 연관된 문제

2.3.1 영문 표기와 관련된 문제

현 표기법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는 로마자 표기가 영문 표기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영어의 알파벳(alphabet)자체가 로마자로 되어있고 또한 로마자는 세계의 여러 나라에서 국제 표기 문자로 쓰고 있기 때문에 혼선을 빚을 수는 있다. 그러나 같은 로마자 철자라도 표기 규정에 의해 언어마다 조금씩 발음을 달리하여 사용된다. 아래 예시 4와 같이 철자 ‘ch’의 경우, 영어는 [tʃ](이 논문에 발음 표기는 IPA(2001)의 발음 표기를 따른다.)음으로, 독일어에서는 [x]또는 [ç]음으로, 한국어에서는 [츠]음으로, 중국어에서는 [ㄷʒ]음으로 발음된다.

예시 4: 독어: Ich [x, ç], 중국어: Changbai Mountain [ㄷʒ],
 한국어: Chungmu [츠], 영어: bench [tʃ]

예시 4는 동일한 로마 철자라도 각 나라마다 그 발음을 달리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언어마다 존재하는 발음 원칙의 차이에 기인한다. 이러한 개별 언어 분절음의 발음 차이뿐 만 아니라 음절 구조가 영어와 우리말은 그 체계를 전혀 달리하고 있다. 즉, 한국어는 음절(syllable)단위로 발음을 하고 영어는 강세음(stress timed) 단위로 발음한다. 이와 같이 두 언어의 음절 구성 요소의 차이가 확연한데도 외국어로서 영어에 익숙해져 있는 한국인은 한글 로마자 표기를 영문 표기로 오인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그래서 우리말을 로마자 표기로 적거나 읽을 때도 영문표기 방식으로 적고 읽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예시 5: Geumgangsán 즈깁싼 (금강산) ; Geobukseon 지오푼손 (거북선)
Gimpo 집포 (김포)

예시 5의 경우, 현 표기법에서는 음절 초성자음 ‘ㄱ, ㄷ, ㅂ’은 로마자 ‘g, d, b’로 대치표기 한 결과, 우리와 달리 유, 무성음을 구분하는 영·미인들은 상기 표기를 보고 어떻게 읽어야할지 어리둥절할 것이다. 또한 영문 표기에 익숙한 한국인에게도 이런 혼란이 올 수 있다.

영어에서 철자 g는 대부분의 경우 [g]음으로 발음된다. 그러나 ge인 경우에는 [g]나 [ʒ]로 발음될 수 있으며, 또 geo-의 경우에는 George, geography, geology등과 같은 단어에서 볼 수 있듯, 거의 예외 없이 [dʒ]로 발음된다.

이와 같은 영어식 발음에 젖은 한국인이나 영·미인들은 Geumgangsán을 [즈깁싼] , [게웁강산] 또는 [췌웁강산]으로, Geobukseon을 [지오푼손], [제오푼세온], [게오푼선] 또는 [췌북세온] 등으로 읽을 확률이 높다. 이와 같은 발음은 실제 한국인의 금강산, 거북선의 발음과 큰 차이가 있다.

예시 6: Hangeul (한글)

예시6의 경우, 현 표기법은 철자 ng은 영어 발음 [ŋ]에 상당하고, 우리말 ㅇ[ieung]을 대체하도록 하고 있다. Hangeul이라는 로마자 표기 자체를 보면 강세 모음 중심의 음절 단위를 가진 영·미인들은 [헝얼] 또는 [한글] 또는 [항에울] 또는 [항얼] 등으로 읽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로마자 표기만으로 우리말 [한글]로 발음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예시 7: Sunhui (순희)

현 표기법의 제정 공청회 과정 중에서 영어학 전공자들을 중심으로 한 일부 어문 전문가들조차 로마자 표기법을 영어 표기법으로 혼돈한 사례가 있다. 우리말 모음 「우」를 로마자 표기법으로는 「oo」로 하자는 논의가 가장 대표적인 예의 하나이다. Book, Look에서 보듯이 영문 표기에서는 「ㅓ」라는 모음은 흔히 「oo」로 표기되곤 한다. 이를 근거로 현 표기법의 「ㅓ」를 「oo」로 표기 하자는 것이다. 따라서 순희는 영문표기로 [SoonHee] 또는 [SoonHi]로 표기하자는 주장이다. 실제로 예시 7을 영미인들이 읽을 때는 [션후이] 또는 [션휘]로 읽을 가능성이 높으며 우리말 발음대로 [순희]라고 읽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예시 8: cup, son, couple, flood, does, along, mountain, parliament, villain, dungeon, easily, porpoise

예시 8에서 밑줄 친 부분에 모음은 영어 발음으로는 [ʌ] 또는 [ə]로 발음 되지만 로마자 표기를 통한 로마자 표기 예상 발음은 각각 [우, 오, 오우, 오:, 왜, 아, 아이, 아, 아이, 어, 이, 오이]로 발음 될 수 있다. 이와 같이 현대 영어는 철자와 발음 사이에 일대 일 대응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대표적인 언어의 하나이다.(Baugh: §156) 그렇기 때문에, 영어의 철자와 발음 관계를 국어 로마자 표기와 연관시키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실제 로마자로 모음표기를 할 수 있는 문자는 5개(a, e, i, o, u)뿐인데 반하여 한국어의 모음자는 10개의 단모음과 11개의 이중모음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것은 표기 원칙상 1음운 1기호의 대체 표기를 할 수 없는 조건이 전제

되어 있다. 따라서 현 표기법에서는 임의적(arbitrary)인 로마 모음자의 결합 규약(convention)을 사용하여 로마자 5개의 모음자를 결합하여 한글 21개의 모음자를 결합조로 대체 사용하고 있다. 예시 9의 경우 영어식 발음으로 읽을 경우에 해당되는 두 개의 모음자에 개별발음은 [ʌ] 또는 [ə] 인데, 한글 로마자 표기발음은 12가지로 달리 발음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로마자 표기와 영문 표기상 있을 수 있는 발음상 차이이므로 한국인들에게 국어 로마자 표기가 영문표기가 아니라는 점을 주지시켜야 할 과제이다.

예시 9: sure, conscious, chute, nation, gracious

현 표기법에서는 음성적 환경에 관계없이 한글의 ㅅ을 로마자 표기 s로 일대일 대응 표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예시 9의 밑줄 친 영문 철자 s, sc, ch, t, c 등의 발음은 영어에서는 [ʃ]로만 발음 되는 반면, 우리말 로마자 표기로 전환했을 때에는 그 발음은 각각 [ㅅ], [쉬], [츠], [ㅌ], [ㅋ] 등으로 발음이 예상되므로 영어식 발음에 익숙한 한국인이나 미국인, 어느 쪽이든 우리말 ㅅ을 로마자 표기 s로 한 것에 대하여 실제 발음을 어떻게 해야 할지 혼선이 예상된다. 그 예는 예시 10에서 볼 수 있다. 현 표기법은 국어의 발음에 따라서 로마자로 적는다고 하고 있으나 사실상 영어의 음절 구조에 맞는 표기상의 오류를 가져오는 경우가 있다. ‘백암’의 표기에 있어서 로마자 표기법 제 2항 [붙임1]은 ‘Baegam’으로 적고 있으나 이 표기는 영문 표기 음절형식에 따른 표기로 간주되며 우리말의 음절구조로 표기하면 ‘Baek-am’으로 표기되어야 할 것이다.

예시 10: 백암 Baegam → Baek-am(*: 현 표기상 어긋난 표기 표시)
설악 Seorak → Seol-ak(*)

현 표기법 제 6항 에서 「자연 지물명, 문화재명, 인공 축조물명 등의 우리말 명칭을 로마자로 표기할 때 붙임표(-) 없이 붙여 쓴다」라고 하고 있으나, 예시 11과 같이 잘 알려진 지물명이나 문화재명 등은 붙임표 없이 우리말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여도 외국인이 그 표기를 보고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예시 12와 같이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명칭의 경우에는 이것이 지명인지 문화재명인지 인공 축조물인지 그 표기 자체만 보고는 이해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예시 11: 서울역 Seoulyeok, 독도 Dokdo, 불국사 Bulguksa, 독립문 Dongnimmun

예시 12: 청도역 Cheongdoyeok, 완도 Wando, 수도사 Sudosa, 불이문 Burimun

예시 13: 부산역 Busan Station, 동호 대교 Dong-ho Bridge, 시청 City Hall,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 Gangnam Express Bus Terminal

예시 12를 처음 보는 경우에는 4개의 명칭 가운데에서 우리말의 역(Station), 도(Island), 사(Temple), 문(Gate)을 의미하는 로마자 표기를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예시 11의 경우 또한 한국인이나 한국을 자주 방문하는 외국인을 제외하고는 로마자 표기 그 자체를 보고 그것이 산인지 섬인지 절인지 또는 인공 축조물의 대문인지를 즉시 파악하기 어려울 것이다. 현 표기법이 이와 같은 것에 대한 분명한 규정을 두지 않음으로써 경우에 따라서는 예시 11이나 12와 같이 표기를 할 때에 특히 외국인들은 물론 일부 한국인들이 이해하는데 어려

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예시 13에서 볼 수 있듯이 서로간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로마자 표기와 영어 단어를 병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예시 14: COEX(Convention and Exhibition, 한국 무역 전시 센터)
BEXCO(Busan Exhibition and Convention center, 부산 무역 전시 센터)

예시 14와 같이 국내에서 세계화 내지 정보화의 일환으로 붙여진 일부 시설의 명칭 중에 영어 단어의 머리글자를 따서 영어식 표기를 한 사례가 있다. 현 표기법이 공청회 과정에서 표기상 한국인의 주체성을 강조하여 가급적 국어 로마자 표기법을 따르도록 하는 의도와는 다르게 건물주들이 자의적으로 선택한 영문 머리글자의 조합으로 붙여진 명칭들의 경우 외국인이나 내국인이 선뜻 건물의 용도를 인식하기 어려운 표기를 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인들을 유치할 목적으로 붙여진 건물의 명칭을 세계어인 영어 단어에 인용 표기하는 것은 건물주들의 필요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선택은 앞으로 한국이 세계화되어가는 추세에 비추어 볼 때 점점 더 확대 되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와 같은 추세를 규제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본다.

2.3.2 음절 구조상의 문제

음절은 그 언어를 모국어로 하는 사람이 심리상 실제로 인식하는 언어 단위이다. 음절에 관련된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첫째 음절의 정의, 둘째 음절의 경계, 셋째 음절은 필요한 음운단위(phonological unit)인가를 관찰해야 할 것이다. (조성식, 1221-1224)

일반적으로 하나의 음절은 하나의 모음(vowel)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원칙을 고수하기 위하여 직전 표기법에는 특수기호 Ǿ 와 ǔ 을 사용하였지만, 정보화 시대에 컴퓨터 자판상 입력의 복잡성, 인공 지능 분야에서 분절의 불명료성 등 인지 과학상 문제가 발생했다. 이를 고려하여, 현 표기법에서는 각각 eo와 eu의 대체 표기법을 채택하였다. 물론 예시 15와 같이 현 표기법 3장 2항은 「발음상 혼동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음절 사이에 붙임표(-)를 쓸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예시 15: 중앙 Jung-ang, 해운대 Hae-undae

그러나 표기 할 때마다 붙임표를 사용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또한 음절 구조를 우리와 달리하는 영·미인들의 경우 예시 16에서 볼 수 있듯이 분절(syllabification)의 차이로 인해 전혀 다른 음절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다.

한국말의 음절구조는 최대 가능 음절 구조는 CVC(Vowel = 음절핵, 중성, Consonant = 하나 또는 0 zero)이나 영어의 최대 가능 음절 구조는 CCCVCCCC이다. (허 웅, 167-169) 우리는 단어를 인식할 때에 CVC로 이루어지는 음절 단위로 받아들이나, 영어에서는 핵음(syllable nucleus)을 중심으로 자음 또는 자음군(consonant cluster)과 분절음(segment)들의 결합으로 단어를 인

식한다.

예시 16: Hangeul

예시 16에서 음절화(syllabification)과정을 보면 우리들은 [한·글]로 읽지만, 영국인(외국인)의 언어 음절구조 직관에서 보면 [Hang·eul], [Han·geul], [Han·ge·ul], [Hang·e·ul]로 분절하여 [행을], [한글], [한게울], 또는 [행에울]로 읽을 가능성이 있다. 이것은 영어는 핵음(syllable nucleus)을 중심으로 해서 분절음들이 결합되는 음절구조를 가지고 있음으로써 예시 16과 같이 ‘한글’의 로마자 표기를 4개의 각기 다른 분절로 인식하는 결과로 본다. 따라서 현 표기법의 공청화 과정에서 국어 국립원이 우리말 중심의 로마자 표기를 강조한 점을 감안하면 한국어 음절 구조에 맞추어서 표기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문제의 해결방안은 우리말의 음절이 시작될 때 철자를 대문자로 표기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또한 외국인들의 경우에는 한국어 발음은 음절단위의 발음을 한다는 것을 교육을 통해서 인식하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본다.

이 분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시 17과 같이 각 분절의 시작을 대문자를 사용하여 분절경계를 나타내는 대안이 제시된 바 있다.(정태충, 2005) 이 경우에 있어서 정태충의 견해에 하나의 규칙을 더하면 단어의 첫머리 글자는 고유명사가 아니면 현 표기와 같이 소문자를 사용하고 둘째 음절부터는 음절경계 표시로 대문자를 사용하여 분절 할 것을 제안한다.

예시 17: 여의도 YeoUiDo, 해운대 HeaUnDae 사내아이 saNaeAI, 개울 gaeUl

현 표기법이 우리말 음절 구조에 맞지 않게 표기법을 정한 것은 다음과

같다. 현 표기법 제 2항 [붙임1] 「ㄱ, ㄷ, ㅂ’은 모음 앞에서는 ‘g, d, b’로, 자음 앞이나 어말에서는 ‘k, t, p’로 적는다.」, [붙임2] 「‘ㄹ’은 모음 앞에서는 ‘r’로, 자음 앞이나 어말에서는 ‘l’로 적는다. 단, ‘ㄹㄹ’은 ‘ll’로 적는다.」를 보면 예시 18에서는 [붙임] 사항을 잘 따르고 있으나 예시 19는 우리말의 분절 규칙에 어긋나는 사례라고 본다. 현 표기법 제 1장 제 1항 「로마자 표기는 국어의 표준 발음법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의 표준 발음법은 우리말은 전형적인 음절 단위 발음법에 근거하므로 붙임1, 2의 「모음 앞에서 받침 발음은 각각 음절 첫머리 발음과 같이 한다.」는 조항은 삭제하여 「어말에서의 발음과 같이 로마자로 적는다.」라고 규정 변경을 하여야 국어 표준 발음법에 따른 표기라고 볼 수 있다.

- 예시 18: 구미 Gumi, 영동 Yeongdong, 부산 Busan
옥천 Okcheon, 한밭(한bat) Hanbat, 합덕 Happdeok
- 예시 19: 백암 Baegagam(Baek-am *), 설악 Seoraak(Seol-ak *)
울릉 Ulleung(Ulreung *)

2.3.3 실제 발음과 표기 관련 문제

현 표기법 제 3장 제 1항은 「음운 변화가 일어날 때에는 변화의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적는다.」라고 규정하고, 또 제 1항 각 호에 로마자로 적는 것에 대해서 4개의 제한 각 호를 둬으로써 국어표준발음법에 따른 자음동화작용과 덧나는 발음, 구개음화 된 발음, 거센소리 발음 등의 발음의 결과 소리를 실제 로마자 표기에 적용함으로써 이와 같은 발음법에 익숙하지 못한 내·외국인에게 로마자로 적기와 읽기를 아주 어렵게 하여 국어 로마자 표기의 일반화를 흐리게 하고 있다.

예시 20: 안락동: [알락동 Allak-dong], [anrak-dong *(예상표기)]

신라: [실라 Silla], [silra *(예상표기)]

백마: [백마 Baengma], [Baekma *(예상표기)]

학여울: [학여울 Hangeoul], [Hakyeoul *(예상표기)]

예시 20은 한글 표기가 국어 실제 발음의 자음 동화작용(consonant assimilation)에 의해서 각각 [알락동], [실라], [백마], [학여울]로 발음된다. 현 표기법은 그 결과음을 로마자로 표기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실제 로마자표기로 적는데 있어서는 일반 한국인이나 외국인의 대부분이 우리말의 발음 법칙을 숙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실제표기에 있어서 대부분의 사용자가 알고 있는 것은 제 2장의 표기일람 내용에 의존하는 것으로, 주변 대학생들에게 각자의 이름을 로마자로 적으라고 하면 제 3장의 음운변화 부분은 거의 의식하지 않고 제 2장의 표기 일람에 근거하여 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제 2장의 표기일람에 따른 일관성과 예측성을 제 3장에 와서 표기상의

유의점이라는 항목으로 여러 가지 단서조항인 「붙임」 사항을 둠으로써 우리말의 발음법을 전문적으로 하는 음운 전문가가 아니면 현 표기법의 내용대로 표기가 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 확인되었다.

아래의 예시 21에서는 「이름에서 일어난 음운 변화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라는 단서조항을 둠으로써 제 3장 1항의 음운 변화에 따른 결과음을 로마자로 적는다는 원칙에 적용을 받지 않는 새로운 제한 항목의 신설은 일반 이용자들에게는 표기상 한층 더 부담감을 주고 있다.

예시21: 한 북남: Han Boknam [한북남/ *한봉남 Han Bongnam]
홍 빛나: Hong Bitna [홍빛나/ *홍빈나 Hong Binna]

예시 20과 예시 21에서 볼 수 있는 실제 발음과 표기상의 차이를 숙지하지 못한 채 현 표기법 제 2장에 의해서만 실제 표기를 하고 있는 대부분의 내국인과 외국인은 세 가지의 상반된 발음법 및 표기법에 혼란스러울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음운 변화 결과음과 그에 따르는 표기법에는 일관성과 예측성(predictability)이 있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현 표기법에서는 동일 음성적 환경과 동일 음운 변화의 결과음에 대해서 「붙임」이라는 8개의 제한조항을 둠으로써 전문가가 아닌 일반 사용자들에게 현 표기법에 대한 읽기와 쓰기에 있어서 일관성과 예측성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차기 개정시에는 원론적인 표기방법을 제시하고 큰 틀에서 가급적 붙임 조항이 없는 표기법을 만들어야 할 것으로 본다.

그간 6차례의 표기법 개정이 있을 때마다 표기법의 명칭이 한글 로마자 표기법 또는 국어 로마자 표기법으로 변경되었다. 명칭 자체가 가지는 중요성을 감안하여 보면 앞으로 표기법의 재 개정이 있을 시에는 명칭을 한글 로마자 표기법(가칭)으로 하고 한글 자모음자(조)에 대응되는 로마자 자모음자(조)를 기본으로

하는 1문자(조)를 다른 1문자(조)로 전환하는 식으로 표기법의 내용을 바꿔야 할 것이다.

예시 22:

한글	예측 표기	실제 표기
ㅡ	eu + i = eui	ui
ㅚ	o + i = oi	oe
ㅜ	u + i = ui	wi

예시 22의 한글 ‘ㅡ, ㅚ, ㅜ’ 등을 하나의 모음 덩어리(cluster)로 간주하느냐 ‘ㅡ’는 ‘ㅡ + ㅣ’로, ‘ㅚ’는 ‘ㅛ + ㅣ’로, ‘ㅜ’는 ‘ㅜ + ㅣ’의 결합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견해가 다를 수 있다. 모음덩어리로 표기할 때는 1모음조 대 1모음조로 표기되는 것으로, 지금까지 표기법에서 지켜온 일관성을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표기상의 예측성을 사용자에게 제공할 것으로 본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 이를 글자 대 글자가 결합하여 로마자 표기를 한다면, ‘ㅡ’는 ‘eu + i’, ‘ㅚ’는 ‘o + i’, ‘ㅜ’는 ‘u + i’의 각각 합자인 ‘eui’, ‘oi’, ‘ui’로 표시되어야 하지만, 실제 로마자 표기는 각각 ‘ui’, ‘oe’, ‘wi’로 표기 하고 있다. 이런 표기는 로마자의 글자 조합을 함에 있어서 원칙과 예측성면에서 어느 하나도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며 특히 ‘ㅜ’를 표기함에 있어서 철자 ‘u’를 사용하지 않고 반모음 ‘w’를 실제 표기에 동원함으로써 더욱 더 예측성을 허용하지 않는 표기라고 볼 수 있다. ‘w’의 원순성(+round)을 표기에 도입한다면 ‘ㅚ’에 있어서도 ‘o’ 대신에 ‘w’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본다.

예시 23:

한글 표기	예상 표기	w 대치 음	로마자 표기
과	oa	ㄱ	wa
내	oae	ㄴ	wae
거	ueo	ㄷ	wo
게	ue	ㄸ	we
기	ui	ㄹ	wi

예시 23에서 한글 ‘ㄱ’와 ‘ㄷ’ 다음에 한글 ‘ㅏ’, ‘ㅑ’, ‘ㅓ’, ‘ㅕ’, ‘ㅗ’가 올 때에는 한글의 ‘ㄱ’와 ‘ㄷ’에 표기 대응 음으로 반모음(semi-vowel) [w]를 로마자 표기에 도입하고 있다. 또 예시 23의 예상 표기에서와 같이 한글 분절모음(vowel segment)들의 결합 형태인 이중모음(diphthong)을 로마자 표기로 옮기는 데에는 많은 문자가 사용될 수 있다. 이것이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표기상 복잡성과 번거로움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각각의 단모음 앞에 반모음 ‘w’를 도입하여 이중모음 표기를 간략화하고 예측성을 기하고 있다.

이들 [w] + 모음으로 결합된 형태의 5개 이중 모음자 표기는 최초 MR표기법에서부터 도입되어, 현재까지 수정 없이 일관성 있게 사용된 점은 표기상의 일관성과 예측성을 견지해 온 우리말 로마자 표기의 긍정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Ⅲ. 영어 표기와 관련한 국어 로마자 표기 사례별 분석

영어 발음에 따른 로마자 철자의 표기가 국어 로마자 표기에 오기된 사례 분석을 위해서 두 개의 집단으로 대별한다.

첫째, 로마자 표기를 영어 교육과 관련해서 영어식 표기가 가장 많이 예상되는 국내 인명과 둘째, 공식성을 띄는 회사 등의 안내 표지판의 사례별 조사 분석을 한다.

이들 두 집단의 각각을 자음과 모음에 있어서 국어 로마자 표기에 영어식 표기가 예상되는 각각 4개 항목을 인명과 안내 표지판 표기 오류 분석을 한다.

3.1 국내인명(자료 출처: 로마자표기 길라잡이, 2010)

자음에 있어서는

가. 모음 앞의 「ㄱ」을 g아닌 k로 표기하는 사례

나. 「ㅅ」을 s가 아닌 sh로 표기하는 사례

다. 「ㅈ」을 j아닌 ch로 표기하는 사례

라. 「ㅂ」을 b아닌 p로 표기하는 사례

등의 4가지 부류로 국어 로마자 표기를 영어식 표기로 하는 사례를 조사. 분석 한다.

가.의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말의 「ㄱ」을 모음 앞에서는 g로 표기하고 받침에 있어서는 k로 표기 한다는 원칙이 있는데 영어에는 유성음과 무성음

의 음소적 변별이 있지만 우리말에서는 자음에 있어서 유.무성음의 구분이 없는 언어이다. 그러나 실제 로마자 표기에 있어서는 영어의 발음을 의식하여 모음 앞에 있어서 g대신 k를 잘못 표기하는 사례가 아주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나.의 경우에 있어서는 종전의 표기법에서 「ㅣ」앞에서는 sh를 사용하는 것이 붙임에 명시하여 사용되어 왔으나 2000년 7월 새 개정 표기법에서는 사용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s로 표기하는 것으로 통일 하였으나 우리 국민들은 계속 이점에 있어서 혼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의 경우에 있어서는 전통적으로 「ㅈ」을 j로 표기하는 것이 국어 로마자 표기법에 일관된 표기였으나 사용자들이 경구개음 「ㅈ」을 발음의 강도를 의식하여 파찰음 ch로 표기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라.의 경우는 가.의 경우와 같다.

모음에 있어서는

가. 「ㅣ」를 i아닌 ee로 표기하는 사례

나. 「ㅜ」를 u아닌 oo로 표기하는 사례

다. 「ㅓ」를 eo가 아닌 u로 표기하는 사례

라. 「ㅑ」를 yeo가 아닌 you로 표기하는 사례 등의

4개 항목에 걸쳐서 영어식 표기가 국어 로마자 표기에 오기된 사례를 조사. 분석 한다.

가. 나.의 경우에 있어서는 전형적인 우리말의 로마자 표기를 영어 발음과 연관하여 표기하는 사례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영어의 see등의 단어에

있어서 우리말의 「ㅣ」가 들어가는 순희의 경우에 있어서 Sunhi로 표기해야 할 것을 영어식 표기 Soonhee로 잘못 표기하는 사례를 흔히 볼 수 있다.

다.의 경우에 있어서는 종전의 표기법에서는 o위에 어긋표를 사용하여 왔으나 새 표기법에서는 어긋표 대신 e철자를 첨가하도록 개정 하였으나 여기에 익숙하지 않는 우리 사용자들은 아무 연관도 없는 u로 표기하는 것을 흔히 볼 수 있으므로 잘못된 표기의 대상으로 했다.

라.의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 한글에 있어서 구개음화된 모음을 표기하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것이 영어에 있어서 you나 young등의 단어에 있어서 한글의 「ㅠ」와 동일시 되어서 이것을 영어 철자 표기에 you로 표기하는 사례가 흔하여 조사 대상 항목으로 정하였다.

3.1.1 자음의 경우

[표1-1] 국내인명 자음 분석 결과표

구분	내 용	총 대상수	국어 로마자 표 기	영어식 표 기
가	모음 앞의 「ㄱ」을 g아닌 k로 표기하는 사례	18	2 (18.1%)	16 (88.9%)
나	「ㅅ」을 sh아닌 s로 표기하는 사례	24	19 (79.2%)	5 (20.8%)
다	「ㅈ」을 j아닌 ch로 표기하는 사례	12	4 (33.3%)	8 (66.7%)
라	「ㅂ」을 b아닌 p로 표기 하는 사례	9	3 (33.3%)	6 (66.7%)

[표1-1]을 분석해 보면 전체적으로 국내인명 자음에 있어 모음 앞의 「ㄱ」을 g아닌 k로 표기하는 사례는 모두 18개였는데, 이 중 88.9%에 해당하는 16명은 영어식 표기를 하고 있었고, 도명기(Do Myeong-Gi)와 최근덕(Choi Gun Duk)만이 올바른 로마자 표기를 하고 있었다. 현 표기법 제 2항 [붙임1] 「‘ㄱ, ㄷ, ㅂ’은 모음 앞에서는 ‘g, d, b’로, 자음 앞이나 어말에서는 ‘k, t, p’로 적는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도명기(Do Myeong-Gi)와 최근덕(Choi Gun Duk)을 제외하고는 이 로마자 표기법과 상반되어 표기되고 있다. 이는 우리말의 경우 유.무성음을 구분하고 있지 않지만 영어는 파열음에 있어서 유.무성음을 구별하고 있다는 데 착안하여 g로 표기하여야 할 것을 k로 인식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례인데, 이는 g로

표기하여야 할 것이다. 김씨성의 경우 국어에서는 폐쇄음 「ㄱ」, 「ㅋ」의 구분이 명백하지만 영어는 구별이 명확하지 못하여 「ㄱ」의 로마자 표기시 국어의 음운 체계에 따라 구별해야 하는데 일반인이 음운 체계의 구별이 쉽지 않기 때문에 「g」나 「k」중 선별적으로 하나를 표기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g」나 「k」의 선별 문제에 있어서 학교 영어 시간에 습관적으로 익혀온 k를 선택했음이 자명하므로 하루 빨리 학교 영어 교육에 있어 로마자 교육의 시급을 우선적으로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교육을 통해 점차적으로 여권과 여러 대외적 인명에 k대신 g가 표기되어 올바른 로마자가 정확하게 보급되어야 할 것이다.

「ㅅ」을 s가 아닌 sh로 표기하는 사례는 국내 인명을 조사한 결과 24개가 조사되었는데, 이 중 79.2%인 19개가 올바른 로마자 표기를 하고 있었고, 박홍식(Park Hong Shik), 신기하(Shin Ki-ha), 신창언(Shin Chang On), 채문식(Chae Mun Shick), 허신행(Huh Shin-haeng)의 5명은 영어식 표기인 sh를 사용하고 있었다. 이는 전형적으로 한국에서 영어 교육을 받아온 한국인의 입장에서 자신에게 알맞는 영어식 발음에 익숙한 우리말 「ㅅ」을 로마자 표기인 s나 영어식 표기인 sh 둘 중 하나를 우선 선별하여 표기하였지만 실제 발음은 어떻게 해야 할 지 혼선이 생기는 경우이며 특히 sh는 경구개 치경 마찰음으로 혀의 앞 부분이 치조 뒤의 단단한 입천장에 닿아서 나오는 소리인데 본 연구에서는 치경 마찰음에 해당하는 소리가 없음에도 이 음소를 한국인들은 자신의 인명에 표기하고 있었는데 이는 한국어 고유의 표기 체계인 s로 표기되어야 올바른 로마자 표기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ㅈ」을 j가 아닌 ch로 표기하는 사례는 국내 인명에서 12개가 조사 되었

고, 그 중 33.3%인 4개가 올바른 표기를 하고 있었다. 「ㅈ」을 ch로 표기할 경우 「ㅊ」과의 발음상 혼동을 초래할 수 있고 우리말의 고유 발음을 살리지도 못하는 것이라 보여지므로 이는 j로 통일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경구개음의 경우 「ch」로 표기하는 것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ㅂ」을 b아닌 p로 표현 하는 사례는 9개가 조사되었고 그 중 안병휘(Ahn Byung Hui), 유병현(Lew Byong-hyon), 이부식(Yi Boo Sik)의 3명만이 p가 아닌 b가 사용되는 바른 표기를 하고 있었는데 차기벽(Cha Ki Pyok)의 경우처럼 이름의 첫 자음에서 b가 아닌 p가 사용되는 경우도 발견되므로 이 부분은 통일성에 대한 지침이 마련되어 그 통일성에 맞게 정확한 표기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박」, 「백」과 같은 성씨의 경우 과거부터 p를 그대로 사용해 오고 있는데, 이는 구세대의 경우 중학교 1학년때부터, 젊은 층은 초등학교 3학년때부터 정규과목으로 처음 접한 외국어 과목이 영어이고 오랫동안 영어 시간에 배운 영어식 표기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으로 보아야 하며 올바른 표기법을 위해 중친회에서 일괄적으로 통일하여 로마자 표기법으로 사용하도록 독려할 수 있으나 그 많은 같은 본의 사람들의 표기에 관여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한국인들의 보수적인 성향으로 미루어볼 때 사람들이 그동안 익숙하게 써오던 표기를 포기하고 새로운 로마자 표기를 쉽게 바꾸어 쓰지 않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현 초등학교 3학년 학생부터라도 로마자 표기법에 맞게 인명 표기를 가르쳐 이들이 향후 성인이 되었을 때 인명의 로마자 표기의 통일성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3.1.2 모음의 경우

[표1-2] 국내인명 모음 분석 결과표

구분	내 용	총 대상수	국어 로마자 표 기	영어식 표 기
가	「ㅣ」를 i아닌 ee로 표기하는 사례	19	17 (89.5%)	2 (10.5%)
나	「ㅓ」를 u아닌 oo로 표기하는 사례	14	4 (28.6%)	10 (71.4%)
다	「ㅜ」를 eo아닌 u로 표기하는 사례	13	0 (0%)	13 (100%)
라	「ㅟ」를 yeo가 아닌 you로 표기하는 사례	6	2 (33.3%)	4 (66.7%)

[표1-2]를 분석해 보면 전체적으로 국내인명 모음에 있어 「ㅣ」를 i아닌 ee로 표기하는 사례는 19개가 조사되었고 그 중 로마자의 바른 표기는 89.5%인 17명으로 나타났다. 다른 경우에 비해 유독 「ㅣ」에 바른 표기가 많은 것은 개음절(음절말에서 사용되는 글자)인 경우보다 폐음절(음절초에 자음으로 시작하며 받침이 있는 글자)의 경우가 많은 것이 그 이유이지만 개음절의 경우라 하더라도 민희성(Min Hee-sung), 백기문(paik kee-moon)은 영어식 표기인 ee를 사용하였으나 도명기(Do Myeong-Gi), 신기하(Shin Ki-ha)는 i의 로마자 표기를 사용하여 통일성이 없어 보이는데, 그 이유는 일반인들이 음운 원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일 것이

다. 「ㅣ」를 ee로 표기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또 다른 이유는 학교 영어 교육의 영향으로 볼 수 있는 데, see와 같은 영어 단어의 학습으로 「ㅣ」를 ee로 표기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 영어에서도 이는 장모음으로 취급되는 바, 우리말은 분절음인데 장모음 발음은 표기상 맞지 않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ㅣ」의 정확한 로마자 표현은 i가 되어야 할 것이다.

「ㅓ」를 u아닌 oo로 표기하는 사례는 14개가 발견되어 그 중 28.6%인 4명만이 올바른 표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 역시 학교 영어 교육의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다. 학교에 다니면서 익혔던 school, book과 같은 단어들로 인해 「ㅓ」의 발음은 당연히 oo로 표기하여야 한다고 생각되어 사용한 예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이유로 교육부 주관아래 하루 빨리 로마자 교육을 현실화 시켜 영어 단어를 영어 철자식으로 배우지만 한글 발음을 영어로 사용할 때에는 정확한 로마자로 표현하는 교육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인명에 대해 세계인들이 통일성을 가지고 사용할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ㅕ」를 eo가 아닌 u로 표기하는 사례는 13개가 발견되었고, 이 중 올바른 로마자 표기에 따라 사용하고 있는 경우는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다.

「ㅕ」의 경우 eo가 아닌 u를 사용하고 있는 이유는 영어 단어에서 eo로 사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인데, 「ㅕ」를 u로 사용하게 되면 u에 해당하는 발음이 「ㅓ」, 「ㅗ」, 「ㅜ」등 다양한 발음이 존재하므로 발음상 혼동을 초래할 수 있어 eo로 통일하여 사용하게 되면 발음상 혼동을 피할 수 있다.

「ㅖ」를 yeo가 아닌 you로 표기하는 사례는 6개가 발견되었고 이 중 2개만이 올바른 표기를 사용하고 있었다. 이는 영어 단어 학습으로 인해 생

긴 결과로 보이며 특히 「영」의 발음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를 young으로 학습해서 생긴 잔재로 보여 지는데, 이는 영어 철자와 로마자 표기는 틀리다는 인식을 하고 일대일 대응으로 표기를 해야 한다는 원칙을 익힌 후 「ㄱ」에 해당하는 로마식 철자를 yeo로 표기하여야 할 것이다.



3.2 안내표지판 (자료 출처: 로마자표기 길라잡이(2010))

안내표지판의 경우 여러 가지 형태의 표지판이 존재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문화재명, 기업체명, 대학명, 은행명, 신문사명으로 한정하여 조사하였으며 결과표도 문화재명, 기업체명, 대학명, 은행명, 신문사명을 모두 포함하였고 그에 따라 분석이 이루어 졌다.

안내표지판도 국내 인명과 마찬가지로

자음에 있어서는

- 가. 모음 앞의 「ㄱ」을 g아닌 k로 표기하는 사례
- 나. 「ㅅ」을 s아닌 sh로 표기하는 사례
- 다. 「ㅈ」을 j아닌 ch로 표기하는 사례
- 라. 「ㅂ」을 b아닌 p로 표현 하는 사례 등의 4 가지로 조사, 분석한다.

모음에 있어서는

- 가. 「ㅣ」를 i아닌 ee로 표기하는 사례
- 나. 「ㅓ」를 u아닌 oo로 표기하는 사례
- 다. 「ㅜ」를 eo가 아닌 u로 표기하는 사례
- 라. 「ㅠ」를 yeo가 아닌 you로 표기하는 사례 등의 4개 항목에 걸쳐서 영어식 표기가 국어 로마자 표기에 오기된 경우를 조사, 분석하고자 한다.

3.2.1 자음의 경우

[표2-1] 안내표지판 자음 분석 결과표

구분	내 용	총 대상수	국어 로마자 표 기	영어식 표 기
가	모음 앞의 「ㄱ」을 g아닌 k로 표기하는 사례	53	23 (43.4%)	30 (56.6%)
나	「ㅅ」을 sh아닌 s로 표기하는 사례	76	66 (86.8%)	10 (13.2%)
다	「ㅈ」을 j아닌 ch로 표기하는 사례	43	30 (69.8%)	13 (30.2%)
라	「ㅍ」을 b아닌 p로 표기 하는 사례	48	41 (85.4%)	7 (14.6%)

[표2-1]을 분석해 보면 모음 앞의 「ㄱ」을 g아닌 k로 표기하는 사례는 전체적으로 53개가 조사되었는데, 그 중 43.4%인 23개가 바른 표기를 하고 있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문화재의 경우 전체 17개 중 17개 모두 올바른 표기를 하고 있었고, 기업체의 경우 14개 중 3개만이 올바른 표기를 하고 있었으며, 대학은 11개가 발견되었는데, 모두 영어식 표기를 사용하고 있었고, 은행의 경우는 4개가 조사되어 그 중 1개만이 올바른 표기를 사용 하였고, 신문사의 경우 7개가 조사되었는데, 그 중 2개만이 올바른 표기를 하고 있었다. 문화재의 경우 과거에 표기가 되었기는 하나 모음 첫 글자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k의 사용을 피하고 g로 올바르게 사용하였는데, 이는 정부 산하 부처인 문화관광부가 외국인들에게 우리 문화재를 우리나라

라 발음에 맞게 전달하려는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인다.

기업체의 경우 건설화학공업(Gunsul Chemical IND. Co. LTD), 이견산업(Eagon Industrial Co. Ltd), 청구(Chonggu Housing & Construction Corp)의 3개만이 올바른 표기를 하고 있었고 나머지는 영어식 표기인 k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는 과거부터 외국으로의 대외 홍보를 목적으로 영어 원어민들에게 맞추기 위해 발음도 영어의 강세 위주로 회사 자체를 부각시킬 수 있도록 첫 음절에 강세를 주도록 의도하여 k를 사용한 것으로 보여진다.

대학의 경우 11개가 조사되었는데, 그 중 올바른 표기는 하나도 없었고 모두 영어식 표기를 사용하고 있었다. 이는 대학명의 경우 표기가 과거에 표기되었던 것이라서 영어식 표기가 아직까지도 바뀌지 못하고 있는 것이며 대학명은 한번 계속 사용하면 대중속의 뇌리 속에 깊이 박혀서 다시 수정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로마자 표기로의 전환은 어려워 보인다. 특히 「ㄱ」으로 시작하는 대학 중 최고의 대학인 고려대학교에서 「ㄱ」의 표기를 한국 최고의 사립대학임을 내세우기 위해 Korea라고 명명함으로써 다른 대학들도 「ㄱ」의 표기를 k로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은행의 경우 4개가 조사되었는데, 그 중 대구은행(Daegu Bank)의 1개만이 올바른 표기를 사용하였고, 나머지 3개는 영어식 표기를 사용하고 있었다. 은행의 경우 과거에 영어 학습식에 의해 표기되던 것을 그대로 표기에 도입하여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대구은행의 경우 그 명칭의 표기를 Daegu로 올바르게 사용하고 있는 것은 대구 지역을 대표하는 은행으로서 대구시의 명칭을 그대로 따른 것으로 보인다.

신문사의 경우 7개가 조사되었는데, 그 중 대구일보(daegu Ilbo)와 세계

일보(Segye Times)만이 올바른 표기를 사용하였는데, 대구일보의 경우 대구 은행과 마찬가지로 대구 지역을 대표하는 신문사로서 지역 명칭을 그대로 따라간 것으로 보이고, 세계일보의 경우 세계라는 이름으로 글로벌 신문사라는 이름을 표방하기 위해 신문사의 이름을 지었다고 가정하여 볼 때, 우리식의 표기를 세계인들에게 그대로 인식시키기 위해 국어 로마자 표기법을 따랐다고 볼 수 있다.

「ㅅ」을 s아닌 sh로 표기하는 사례는 76개가 조사되었는데, 그 중 로마자 표기는 86.8%인 66개였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문화재는 29개가 조사되었는데, 그 중 29개 모두 올바른 표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는 경구개 치경 마찰음(혀의 앞 부분이 치조 뒤의 단단한 입천장에 닿아서 나오는 소리)에 해당하는 예가 없었고 정부 산하 부처인 문화관광부가 외국인에게 문화재의 이름을 한국어에 알맞게 알리려는 목적으로 s의 표기를 선택한 결과라 하겠다.

기업체는 19개가 조사되어 그 중 16개가 올바른 표기를 하고 있었는데 농심(Nong shim Co), 대신증권(Daeshin Securities Co. LTD), 한신공영(Han Shin Construction Co. LTD)의 3개의 기업체는 영어식 표기인 sh로 표기하고 있었는데, 이는 경구개 치경 마찰음인 sh가 국어에서의 「ㅅ」이 단모음 「ㅣ」와 이중모음 앞에서 일어나는 현상으로 입모양이 벌어지면서 혀의 앞부분이 치조 뒤의 입천장에 닿는다고 판단하여 단모음 「ㅣ」 앞에 sh를 표기한 대표적 예라고 하겠다.

대학명은 19개가 조사되어 그 중 15개가 올바른 표기를 하고 있었는데, 대신대학교(Taeshin University), 명신대학교(Myungshin Unuiversity), 성신대학교(Sungshin Women's University), 충신대학교(Chongshin

College)의 4개 대학은 영어식 표기인 sh로 표기하고 있었는데, 이 경우 역시 경구개 치경 마찰음인 sh가 국어에서의 「ㅅ」이 단모음 「ㅣ」와 이중모음 앞에서 일어나는 현상으로 입모양이 벌어지면서 혀의 앞부분이 치조 뒤의 입천장에 닿는다고 판단해 단모음 「ㅣ」 앞에 sh를 표기한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은행명은 3개가 조사되었는데 그 중 두 개가 올바른 표기를 하고 있었고, 신문사명은 8개가 조사되었는데, 그 중 6개가 올바른 표기를 하고 있었으나, 서울신문(Seoul Shinmun)과 한겨레신문사(Hankyoreh Shinmun)의 두 경우는 신문사의 신문이라는 표기를 sh로 하고 있었는데, 이는 조사된 신문사로 호칭되는 모든 경우가 마찬가지이다.

「ㅈ」을 j아닌 ch로 표기하는 사례는 43개가 조사되었는데, 그 중 올바른 표기는 69.8%인 30개로 조사되었으나 영어식 표기도 13개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문화재의 경우 조사된 19개 중, 19개 모두 올바른 표기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는 「ㄱ」과 「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정부 주도하에 우리나라 문화재를 올바르게 알리기 위해 우리 말에 정확하게 부합하는 로마자 표기를 사용한 사례로 보인다.

기업체의 경우 6개가 조사되었는데 이 중 2개가 올바른 표기를 사용하고 있었으나, 제일합섬 (Cheil Synthetics INC), 조선맥주(Chosun Brewery Co LTD), 종근당(Chong Kun Dang Corp), 진양(Chin Yang Corporation)의 4개는 영어식 표기를 사용하고 있었다. 이는 회사명을 강조하기 위해 파열음을 사용하여 어두의 글자를 강조하고 영어 원어민들의 편의를 위해 강세 발음의 영어식 표현을 한 것으로 보인다.

대학의 경우는 9개가 조사되었는데, 이 중 3개는 올바른 표기를 사용하고

있었으나, 6개는 영어식 표기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영어식 표기의 경우 「ㅈ」이 어두에 오는 경우나 어두가 파열음일 경우 그 다음 자음이 「ㅈ」으로 연결될 때 영어식 표기인 ch로 표기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표기 역시 오래된 대학의 표기 관행으로 그동안 쌓아온 대학의 이미지를 고려해 볼 때 로마자 표기로의 전환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

은행의 경우 2개가 조사되었는데, 모두 올바른 표기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신문사의 경우 7개가 조사되었는데, 이 중 4개는 올바른 표기를 하였으나 3개는 영어식 표기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ㅂ」을 표현 하는 사례는 48개가 조사되었는데, 그 중 85.4%인 41개가 로마자 표기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7개는 영어식 표기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문화재의 경우 12개가 조사되었는데, 그 중 12개 모두 로마자 표기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조사 대상에서 제외 되었지만 안압지(Anapji)와 파도다탑(Pagodatap)의 2개는 어말에서 p로 표기된 올바른 로마자 표기 사용의 예라고 볼 수 있다.

기업체의 경우 6개가 조사되었는데, 그 중 5개가 올바른 표기로 나타났고 1개는 영어식 표기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방림(Pang rim Co)이 영어식 표기의 예에 해당한다. 방림의 영어식 표기의 경우 그 다음 글자에 두 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고 글자 그대로 표기되어 어두의 표기가 p가 된 경우이다. 그 이외에는 모두 b로 표기가 되었는데, 이는 대부분의 지명도 b로 바뀌었고 이 경우는 로마자 보급이 어느 정도 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대학의 경우 5개가 조사되었는데, 그 중 1개가 올바른 표기를 사용하였고, 4개는 영어식 표기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올바른 표기는 전북대

학교(Chonbuk University)의 경우인데, 이는 전라북도의 약자인 전북이라는 표기를 도청이 사용하는 표기와의 통일성을 두기 위한 것으로 사료되며, 나머지 영어식 표기의 경우는 그 대학이 위치한 도시가 이미 그 명칭을 p에서 b로 바꾸어 쓰고 있다 하더라도 과거의 표기를 버리지 못하는 경우인데 이는 그 대학의 명칭이 그 지역이나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있어서 그 대학의 영어 표기 또한 과거의 방식 그대로 따르는 경우인데, 이는 국제화시대의 대학으로 나아가기 위해 대학의 이미지는 그대로 가지고 나가면서 표기상의 부분을 해외 여러 대학에게 홍보함으로써 바꾸어 나가길 기대해 본다.

은행의 경우 4개가 조사되었는데, 그 중 2개가 올바른 표기를, 나머지 2개는 영어식 표기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문사의 경우 21개가 조사되었는데, 21개 모두 올바른 표기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2.2 모음의 경우

[표2-2] 안내표지판 모음 분석 결과표

구분	내 용	총 대상수	국어 로마자 표 기	영어식 표 기
가	「ㅣ」를 i아닌 ee로 표기하는 사례	47	19 (40.4%)	28 (59.6%)
나	「ㅓ」를 u아닌 oo로 표기하는 사례	71	63 (88.7%)	8 (11.3%)
다	「ㅜ」를 eo아닌 u로 표기하는 사례	48	26 (54.2%)	22 (45.8%)
라	「ㅟ」를 yeo가 아닌 you 로 표기하는 사례	15	13 (86.7%)	2 (18.8%)

[표2-2]를 분석해 보면 「ㅣ」를 i아닌 ee로 표기하는 사례는 47개로 조사되었고, 그 중 40.4%가 로마자 표기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8개는 영어식 표기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문화재의 경우 7개가 조사되었는데, 7개 모두 올바른 표기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자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정부 주도로 우리 문화재를 정확하게 알리기 위해 정확한 로마자 표기를 사용한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우리말의 분절 단위의 발음을 정확히 살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업체의 경우 18개가 조사되었는데, 18개 모두 올바른 표기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자음에서는 영어식 표기가 나타났던 반면 모음 「ㅣ」의 경우에는 모두 올바른 표기를 하고 있는 것은 해당 기업체의 상호를 발음할 때 어색한 영어식 발음을 피하고 우리나라 고유의 발음을 유도한 것으로

로 풀이된다.

대학명의 경우 8개, 은행명의 경우 3개, 신문사의 경우 21개가 조사되었는데, 각각의 경우 모두 올바른 표기를 하고 있었고 영어식 표기는 발견되지 않았는데, 이는 모두 우리말에 알맞는 해당 대학, 은행, 신문사의 한국식 발음을 유도하고 해당 업체의 고유한 이름을 정확하게 기억하도록 하려는 노력으로 풀이된다.

「ㅌ」를 u아닌 oo로 표기하는 사례는 71개가 조사되었는데, 그 중 88.7%인 63개가 올바른 표기를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나머지 8개는 영어식 표기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문화재의 경우 19개가 조사되었는데, 19개 모두 올바른 표기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기업체의 경우 13개가 조사되었는데, 이 중 7개는 올바른 표기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6개의 경우는 영어식 표기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체의 영어식 표기의 경우 특히 케이스별로 그 사용을 달리 하고 있었는데, 예를 들어 같은 첫 어두 다음 모음에 있어 풍농(Pungnong CO. LTD)의 경우는 u를, 풍산(Poongsan Corp)의 경우는 oo를 사용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예라 하겠다.

대학명의 경우 17개가 조사되었는데, 12개는 올바른 표기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5개는 영어식 표기를 하는 것으로 나타는데, 부산과 순천과 같이 도시명이 u로 표기된 경우 도시명과 같이 u의 통일성을 기하고 있었고, 파열음 다음 「ㅌ」의 표기시 u의 올바른 표기를 사용하고 있었으나, 「ㅌ」의 경우 음절 경계를 위해 원순모음 w와 함께 oo를 사용한 경우도 있었다.

은행명의 경우 7개가 조사되었는데, 그 중 6개는 올바른 표기를 하는 것

으로 나타났으나 1개는 영어식 표기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문사의 경우 14개가 조사되었는데, 그 중 8개는 올바른 표기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6개는 영어식 표기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ㄱ」을 eo아닌 u로 표기하는 사례는 48개가 조사되었는데 그 중 54.2%인 26개가 로마자 표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22개가 영어식 표기를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문화재의 경우 23개가 조사되었는데, 23개 모두 로마자 표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기업체의 경우 10개가 조사되었는데 10개 모두 영어식 표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기업체명에서 올바른 로마자 표기가 없는 것은 초. 중. 고 영어 시간에 「ㄱ」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를 접해보지 못해서이며 대부분 sung과 같은 영어 단어에서 그 원칙을 찾아 기업체 경영자들이 회사명을 영어 표기에 응용하였기 때문이라 사료된다.

대학명의 경우 10개가 조사되었는데, 10개 모두 영어식 표기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역시 기업체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료되므로 대학의 이미지 제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 대학의 영어영문학과가 주도해서라도 이 부분은 조금씩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은행명의 경우 1개가 조사되었고, 그 표기는 올바른 것으로 나타났는데 전북은행(Jeon Buk Bank)이 이에 해당된다. 전북은행의 경우 전라북도의 줄임말의 전북을 도청에서 사용하는 그대로 사용하여 통일성을 기하는 부분이라 할 수 있겠다.

신문사의 경우 4개가 조사되었는데, 2개는 올바른 표기로 나타났으나 2개는 영어식 표기로 나타났다.

「ㄱ」을 yeo가 아닌 you로 표기하는 사례는 15개가 조사되었는데 그 중

13개가 로마자 표기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2개는 영어식 표기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문화재의 경우 10개가 조사되었는데 10개 모두 로마자 표기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기업체의 경우 조사된 2개 중, 로마자 표기를 하는 것과 영어식 표기를 하는 경우가 각각 1개씩 나타났는데, 이는 영창악기제조(Young Chang Akki Co. LTD)처럼 어두에 나타날 때는 영어의 young으로 인식하여 바로 you로 표현하는 것으로 사료되고, 어두의 경우가 아닐 때는 남영비비안 (Namyong vivien corporation)의 경우처럼 yeo로 표현하였는데, 이런 경우는 기업체들이 자의적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사료된다.

대학명의 경우 1개가 조사되었는데, 그 조사 대상은 평택대학교 (Pyeongtaek University)로 로마자 표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 경우는 과일음과 함께 연결될 때 yeo로 사용되는 예라고 볼 수 있다.

은행명의 경우 조사된 경우가 없으며, 신문사의 경우 2개가 조사되었는데, 경인일보(Kywongin Ilbo)의 경우 올바른 로마자 표기를 사용하고 있었고, 한겨레신문(Hankyoreh Shinmun)의 경우 영어식 표기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영어 표기와 관련한 국어 로마자 표기 사례를 인명과 안내 표지판으로 구분해서 각각 자음과 모음의 경우에 따라 어떤 결과가 도출되는지를 알아보았다. 인명의 경우에서 자음의 경우는 모음 앞의 「ㄱ」을 k가 아닌 g의 로마자로 바르게 표기한 비율이 18.1%로 다른 경우보다 적었는데, 이는 인명에 있어 아직도 국어 로마자의 보급이 되지 않았다는 증거라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우리나라 姓氏중 김씨의 빈도가 가장 많기 때문

이며 또한 영어 수업 시간에 학습한 영어식 표기의 잔재가 그대로 남아있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김해시의 경우 그 명칭을 Kimhae라고 쓰던 것을 몇 년 전부터 Gimhae라고 바꾸어 씌으로써 국어 로마자를 그대로 따르는 사례로 볼 수 있어 그러한 노력들이 앞으로 일반인들로 하여금 로마자를 사용하는 데 일상화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그 다음은 「ㅅ」의 경우로 79.2%의 비율을 차지했는데, 이는 각 개인이 발음상 편의를 위해 s로 표기하는 빈도수가 많아졌기 때문일 것이다.

「ㅈ」과 「ㅊ」의 경우 「ㅅ」의 경우에 비해 그 빈도수가 낮는데 그 이유는 성의 경우 모음 앞에서 과거에 ch와 p를 써오던 것이 계속 남아 있어 바꾸지 못하고 있고 특히 해당 종친회에서 성의 통일성을 기하여 그대로 답습된 결과라고 보여 진다. 이의 해결을 위해 종친회에서 성을 로마자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하여 여권이나 여러 문서에 모든 성의 표기상 통일성을 기하여 정확한 로마자 표기대로 사용할 수 있다면 종친회가 국제화에 일조하는 한 획을 긋는 일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국내 인명 모음의 경우는 「ㅣ」의 경우가 89.5%로 가장 많았는데 이는 국어의 발음상 편리성에 있어 ee를 표현하는 것보다 i를 표현하여 비교적 국어 발음에 가깝게 표기하는 사례가 많아졌기 때문이며 또한 개음절(음절 말에서 사용되는 글자)인 경우보다 폐음절(음절초에 자음으로 시작하여 받침이 있는 글자)의 경우가 많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 다음은 33.3%를 차지한 「ㄱ」의 경우인데 최근에는 영어식 철자인 young의 you보다 yeo라고 쓰는 사람의 빈도수가 조금씩 늘다보니 자연 발생적으로 국어 로마자가 보급된 것이라 사료된다.

「ㅊ」의 경우 eo의 바른 표기가 없는 것은 영어 단어 학습시 이에 해당

하는 단어를 학습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을 미루어 볼 때, 하루빨리 영어 교육에서 로마자 교육도 같이 병행되어야 함을 느낄 수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안내표지판의 경우에는 문화재, 기업체명, 대학명, 은행명, 신문사명으로 나누었고 이를 전체적으로 자음과 모음으로 분석하였다. 자음의 경우에는 「ㅅ」의 경우, s가 아닌 sh로 표기된 사례가 가장 높은 비율인 86.8%에 달한다. 이는 과거에는 영어 학습으로 인해 「ㅅ」의 표기를 영어식인 sh로 하는 것이 자연적이었지만 현대는 편리함을 추구하는 시대여서 사람들의 언어 생활도 편리성을 추구하게 되어 「ㅅ」의 표기 역시 국어의 발음과 일치하는 편리성을 추구하다 보니 s로 정확히 표기하는 비율이 늘어난 것으로 보여지는데, 영어식 표기가 사용된 경우는 모음 앞에 사용된 「ㅅ」의 표기가 대부분이었다.

그 다음으로 「ㅂ」를 b아닌 p의 표기로 사용된 사례가 85.4%의 비율을 차지했는데, 이는 문화재명의 경우 정부 주도로 문화재의 우리말 표기를 정확히 하려는 데 한 몫 하였고 「ㅂ」으로 시작하는 도시 내에 있는 대학이나 은행의 경우는 그 시내 도의 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표기를 따르려는 노력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모음 앞의 「ㄱ」의 경우 바른 표기율의 빈도수가 낮은 것은 대학이나 은행등이 지금까지 쌓아왔던 이미지를 버리고 과거에 써오던 이름 대신 새로운 로마자로 표기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큰 모험이라 새로운 표기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모음의 경우 「ㅜ」의 바른 표기인 u로 사용된 비율이 88.7%로 가장 높았는데 이는 울산(Ulsan)과 같은 도시명이나 기타 여러 매체 등의 영향으로 보여진다. 그 다음으로 「ㅠ」가 86.7%를 차지하였는데, 이는 you를 표기할 때 「ㅠ」와의 발음 혼동 문제도 있어 대체방안으로 yeo를 사용하는 횟수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ㅣ」의 경우 올바른 로마자 표기의 빈도수가 낮은 것은 과거 영어 학습에 따른 표기법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종합해볼 때 학교나 여러 기관들에서 앞장서서 로마자 보급에 힘써야 하겠고 특히 이미 로마자로 그 철자를 바꾸었음에도 표지판이나 여러 글자로 된 매체들에서 여전히 과거의 표기법들로 사용하는 경우도 빈번한 데 이런 부분은 정부가 나서서 조속히 표지판이나 여러 사용물들은 새로운 로마자 표기법으로 바꾸어서 일반 대중들이 하루 빨리 로마자를 정확하게 익힐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고 특히 이런 로마자가 하루 빨리 전국적으로 보급이 되어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용하는 모든 서류들에 로마자를 사용함으로써 그 표기법에 통일성을 기하여 표기법의 세계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IV. 결 론

이 연구에 있어서 연구과제 1과 연구과제 2에 대해서 조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연구과제1에 대한 비교, 분석한 결과는 국내 인명의 표기에 있어서는 자음에 있어서는 33%가, 모음에 있어서는 55.6%가 영어식 표현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자음의 경우, 일상 생활에서 로마자의 생활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져 자신의 인명 표기에도 로마자 표기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모음의 경우, 아무래도 우리말의 뒤에 오는 음이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로마자가 쓰였다해도 시선이 덜 갈 수 있으며 초등학교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학습한 영어의 발음과 철자의 영향이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연구과제2에 대한 비교, 분석한 결과는 자음에 있어서는 27.1%, 모음에 있어서는 31.3%가 영어식 표현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안내표지판은 문화재명, 기업체명, 대학명, 은행명, 신문사명을 표본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문화재명의 경우 정부 주도하에 올바른 문화재명을 외국인에게 알리기 위해 올바른 표기를 하는 경우가 많고 대학명과 은행명의 경우 해당 시나 도가 로마자 표기를 하는 경우는 대학이나 은행 역시 그 표기를 따라가는 경향이 커서 영어식 표기의 비율이 낮은 것으로 사료된다.

국어 로마자 표기법이 시행된 지 10여년이 지났지만 사회 전반에 걸쳐서 영어 교육의 영향이 국어 로마자 표기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영어의 로마자 표기는 영어의 발음에 따라서 표기한 것

이고 국어의 로마자 표기는 국어의 발음에 따라서 표기한 것인 만큼 앞으로 정부는 국어 로마자 표기 방식을 만들어 보급하고 각 초.중.고등학교 영어 시간에 교육하게 함으로써 지금부터라도 로마자 표기를 제대로 교육하여 인명등 여러 부문에서 로마자 표기의 통일성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특히 여권 담당 관공서, 신용카드 발급 회사등이 각 개인의 이름을 로마자 표기법에 따라 표기할 수 있도록 정부가 로마자 표기법에 대한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바른 표기의 보급을 위한 제도적 장치에 힘써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참 고 문 헌

- 국립 국어 연구원. 2000. 「새 국어 로마자 표기법」
_____. 1996.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국어 문화 연구소. 2000. 「로마자 표기 용례집」
고창운. 2006. 「한글 맞춤법 해설과 이해」경진문화사
김충배. 1978. “우리말 로마자 표기 문제”, 언어, 제3권, pp.71~85
배재덕. 2010. 「국어 표준발음법에 따른 로마자표기 길라잡이」, 부경대
학교 출판부
_____. 2010, 「A Short History Of the English Language」, 논문의 집
_____. 2009. 「영어음성학과 발음교육」논문의 집
_____. 2009. “국어 로마자 표기법에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 방안”, 동북
아 문화연구, 제21집, pp. 129~146
유만근. 1985. “표준 한국어 정밀표음 로마자 맞춤법 연구”, 언어, 제10권,
pp171~202.
전홍식. 2000. “국어 표기법에 관한 연구”, 외국어 연구, 제 13집, 성심 외
국어 대학 외국어 교육 연구소, pp. 27~44
정태충. 2005. 「정음로마자 표기법」경희대학교 출판부
조두상. 1998. “로마 철자 및 영문 표기 실태 연구”, 영미어문학, 제38집,
PP.179~199
Baugh. A.C. & Cable T. 2002. 「A History of the English Language」 5th
ed. N.J.: Prentice Hall
Harvey, J. 「Korean Romanization: The McCune-Reischauer System」 The
Korean Branch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Vol. 38 1961, ed. by

- Wagner, E. W. 1971
- Jones. D 1924. 「An English Pronouncing Dictionary」 . Tokyo: Maruzen Co.
LTD
- Vallins, G. H. 1965. 「 Spelling.」 : UK Cambridge Printers.



부록 1

1.1 국내인명 (본 연구의 표기 용례 자료 출처는 로마자표기 길라잡이, 2010에 의함, 모든 자료는 ㄱ, ㄴ, ㄷ...등의 순서에 따르고 있음)

「 ㄱ 」

김기덕 Kim Keyduk	→ Gim Gi(-)deok
김두희 Kim Doo-hee	→ Gim Du(-)hui
김숙희 Kim Sook He	→ Gim Suk(-)hui
김찬욱 Kim Chan Wook	→ Gim Chan(-)uk
김현철 Kim Hyun Chul	→ Gim Hyeon(-)cheol

「 ㄴ 」

나명희 Na Myeong Hee	→ Na Myeong(-)hui
남흥우 Nam Heung woo	→ Nam Heung-u
노관호 Ro Kwan-ho	→ No Kwan(-)ho
노기태 Roh ki Tae	→ No Gi(-)tae
노정현 Ro Chung Hyun	→ No Jeong(-)hyeon

「 ㄷ 」

담철곤 Tam Chul-kon	→ Dam Cheol(-)gon
도명기 Do Myeong-Gi	→ ○
도명정 To Myung-jung	→ Do Myeong(-)jeong
도원태 To Won-Tae	→ ○
도진석 To Jin-Suk	→ Do Jin(-)seok

「 ㅁ 」

문덕수 Moon Dok-soo	→ Mun Deok(-)su
문일지 Moon Il-chi	→ Mun Il(-)ji
민석홍 Min Suk Hong	→ Min Seok(-)hong
민태형 Min Tai Hyung	→ Min Tae(-)hyeong
민희성 Min Hee-sung	→ Min Hui(-)seong

「 ㅂ 」

박영우 Park young Woo	→ Bak yeong(-)u
박유광 Park You Kwang	→ Bak Yu(-)gwang
박해영 Park Hae Young	→ Bak Hae yeong
박홍식 Park Hong Shik	→ Bak Hong(-)sik
백기문 Paik Kee-moon	→ Baek Gi(-)mun

「 ㅅ 」

서대원 Suh Tae-won	→ Seo Da(-)won
성현아 Sung Hyun a	→ Seong Hyeon a
송희연 Song Hee Yhon	→ Song Hui(-)Yeon
신기하 Shin Ki-ha	→ Sin Gi(-)ha
신창언 Shin Chang On	→ Sin Chang(-)eon

「 ㅇ 」

안귀덕 Ahn Kwi Douk	→ An Gwi(-)deok
안병휘 Ahn Byung Hui	→ An Byeong(-)hwi
유병현 Lew Byong-hyon	→ Yu Byeong(-)hyeon
이건영 Lee Kun-young	→ I Geon(-)yeong
이부식 Yi Boo Sik	→ I Bu(-)sik

「 ㅈ 」

장덕상 Chang Duk-Sang → Jang Deok(-)sang
장성만 Chang Sung Man → Jang Seong(-)Man
장충식 Chang Choong Sik → Jang Chung-sik
정동영 Chung Dong Young → Jeong Dong(-)yeong
정희성 Jung Hee sung → Jeong Hui seong

「 ㅊ 」

차기벽 Cha Ki Pyok → Cha Gi(-)byeok
채문식 Chae Mun Shick → Chae Mun(-)sik
최근덕 Choi Gun Duk → Choe Geun(-)deok
최정림 Choi Chung Lim → Choe Jeong(-)lim
최형우 Choi Hyung Woo → Choe Hyeong(-)u

「 ㅍ 」

표세진 Pyo Sei Jin → Pyo Se(-)jin
표승화 Pyo Sung-wha → Pyo Seung(-)hwa
표용은 Pyo Yong-eun → Pyo Yong(-)eun
표용수 Pyo Yong Su → o

「 ㅎ 」

한승수 Han Seung Soo → Han Seung(-)su
허신행 Huh Shin-haeng → Heo Sin(-)haeng
현승훈 Hyun Seung Hoon → Hyeon Seung(-)hun
홍종인 Hong Chong In → Hong Jong(-)in
황인길 Hwang In Kil → Hwang In(-)gil

1.2 안내 표지판

가. 문화재명

「ㄱ」

경복궁	Gyeongbokgung
경포대	Gyeongpodae
거열산성	Geoyeolsanseong
고려전	Goryeojeon
고종왕릉	Gojongwangneung

「ㄴ」

낙안서원	Nagan
남대문	Namdaemun
남한산성	Namhansanseong
남원성	Namwonseong
능산리	Neungsan-ri

「ㄷ」

다보탑	Dabotap
덕수궁	Deoksugung
도전	Dojeon
독립문	Dongnimmun
동묘	Dongmyo

「ㄹ」

망월동 구 묘지	Mangwol-dong Gu Cemetery
목포향토박물관	The Mokpo Local Culture Museum
몽촌토성	Mongchontoseong



무열왕릉 Muyeorwangneung

미인도 Mi-Indo

「 ㅂ 」

백자 Baekja

부녀자들의 유람 Bunyeojadeul-ui yuram

북한산성 Bukhansanseong

불국사 Bulguksa

비원 Biwon

「 ㅅ 」

서당 Seodang

석굴암 Seokguram

수원성 Suwonseong

쌍계사 Ssang-gyesa

씨름 Ssireum

「 ㅇ 」

안압지 Anapji

영남루 Yeongnamnu

오죽헌 Ojukheon

운현궁 Unhyeongung

의상대 Uisangdae

「 ㅈ 」

자락정 Jarakjeong

조선별전 Joseon-byeoljeon coin

종묘정전 Jongmyojeongjeon



진산향교 Jinsan hyanggyo

진주성 Jinjuseong

「 ㅈ 」

창경궁 Changgyeonggung

창덕궁 Changdeokgung

천마총 Cheonmachong

첨성대 Cheomseongdae

충렬사 Chungyeolsa

「 ㅊ 」

통도사 Tongdosa

「 ㅌ 」

파고다탑 Pagodatap

파적도 Pajeokdo

팔만대장경 Palmandaejang gyeong

포석정 Poseokjeong

포충사 Pochungsa

「 ㅎ 」

하회탈 Hahoe mask

현충사 Hyeonchungsa

혜소국사비 Hyesoguksabi

화순향교 Hwasun hyanggyo

황산대첩비 Hwangsandaechepbi



나. 기업체명

「ㄱ」

건설화학공업 GUNSUL CHEMICAL IND. CO. LTD
→ GEONSEOL

고려증권 CORYO SECURITIES CO.
→ GORYEO

극동건설 KUK DONG CONSTRUCTION CO. LTD
→ GEUK DONG

금호타이어 KUMHO TIRE CO. LTD
→ GEUMHO

기린 KIRIN CO. LTD
→ GIRIN

「ㄴ」

남광토건 NAM KWANG ENGINEERING & CONSTRUCTION CO. LTD
→ NAM GWANG

남북수산 NAM BUK FISHERIES CO. LTD
→ ○

남영비비안 NAMYEONG VIVIEN CORPORATION
→ NAMYEONG

남해화학 NAMHAE CHEMICAL CORP.
→ ○

농심 NONG SHIM CO.
→ NONG SIM

「ㄷ」

대신증권 DAESHIN SECURITIES CO. LTD
→ DAESIN

대웅제약 DAEWOONG PHARMACEUTICAL CO. LTD

→ DAEUNG

대한방직 TAIHAN TEXTILE CO. LTD

→ DAEHAN

동아건설산업 DONGAH CONSTRUCTION IND. CO.LTD

→ DONG-A

두산 DOOSAN INDUSTRIAL CO

→ DUSAN

「ㄹ」

롯데물산 LOTTE MOOL SAN CO. LTD

→ ROTTE

롯데상사 LOTTE TRADING CO. LTD

→ ROTTE

롯데제과 LOTTE CONFECTIONARY CO. LTD

→ ROTTE

롯데칠성음료 LOTTE CHIL SUNG BEVERAGE CO. LTD

→ ROTTE CHIL SEONG

린나이코리아 RINNAI KOREA CORP.

→ ○

「ㄹ」

만도기계 MANDO MACHINARY CORP.

→ ○

만호제강 MANHO ROPE WIRE LTD.

→ ○

매일유업 MAEIL DAIRY INDUSTRY CO. LTD.

→ ○

미원 MI WON CO. LTD

→ ○

미원음료 MIWON BEVERAGE INC.

→ ○

「 ㅂ 」

방림 PANG RIM CO

→ BANG NIM

범양식품 BUMYANG FOOD CO. LTD

→ BEOMYANG

보람증권 BORAM SECURITIES CO. LTD

→ ○

부광약품 BU KWANG PHARM. IND. CO. LTD

→ BU GWANG

빙그레 BING GRAE CO. LTD

→ BINGGEURE

「 ㅅ 」

사조산업 SAJO INDUSTRIAL CO. LTD

→ SAJO

삼광유리공업 SAMKWANG GLASS IND. CO. LTD

→ SAMGWANG

삼성물산 SAMSUNG CORPORATION

→ SAMSEONG

삼양식품 SAMYANG FOODS CO. LTD

→ SAMYANG

삼천리 SAMCHULLY CO. LTD
→ SAMCHEONRI

「ㅇ」

애경산업 AEKYUNG IND. CO. LTD.
→ AEKYEONG

영창악기제조 YOUNG CHANG AKKI CO. LTD
→ YEONG CHANG AKGI

유공 YUKONG LTD.
→ YUGONG

이건산업 EAGON INDUSTRIAL CO. LTD
→ IGEON

인천제철 INCHON IRON & STEEL CO. LTD
→ INCHEON

「ㅈ」

제일제당 JAEIL FOODS INC.
→ JEIL

제일합섬 CHEIL SYNTHETICS INC.
→ JEIL

조선맥주 CHOSUN BREWERY CO. LTD
→ JOSEON

종근당 CHONG KUN DANG CORP.
→ JONG GEUN DANG

진양 CHIN YANG CORPORATION
→ JIN YANG

「 ㅈ 」

천일고속 CHUNIL EXPRESS CO. LTD
→ CHEONIL

천일정기화물 CHUN IL CARGO TRANSPORTATION CO. LTD
→ CHEON IL

청구 CHONGGU HOUSING & CONSTRUCTION CORP>
→ CHEONGGU

충남방직 CHOONGNAM SPINNING CO. LTD
→ CHUNGNAM

충북투자금융 CHUNG BUK INVESTMENT & FINANCE CORP.
→ CHUNGBUK

「 ㅊ 」

태광산업 TAE KWANG INDUSTRIAL CO. LTD
→ TAE GWANG

태성기공 TAESUNG MACHINERY * CONST. CO. LTD
→ TAESEONG

태영 TAE YOUNG CORPORATION
→ TAE YEONG

태흥산업 TAEHEUNG CORPORATION
→ ○

통일중공업 TONG IL HEAVY INDUSTRIES CO. LTD
→ ○

「 ㅍ 」

평화산업 PYUNG HWA INDUSTRIES CO. LTD
→ PYEONG HWA

포항제철 POHANG IRON & STEEL CO.
 → POHANG

풍농 PUNGNONG CO. LTD
 → ○

풍산 POONGSAN CORP.
 → PUNGSAN

풍성전기 POONG SUNG ELECTRIC CO. LTD.
 → PUNGSEONG

「 ㅎ 」

한국제지 HANKUK PAPER MFG. CO. LTD.
 → HANGUK

한성기업 HANSUNG ENTERPRISE CO. LTD.
 → HANSEONG

한신공영 HANSHIN CONSTRUCTIONCO.
 → HANSIN

해태유업 HAITAI DAIRY CO.
 → HAETAE

흥국상사 HEUNGKUG SANGSA LTD.
 → HEUNG(-)GUK

다. 대학명

「 ㄱ 」

건국대학교 KON-KUK UNIVERSITY
 → GEON-GUK

경남대학교 KYUNGNAM UNIVERSITY
 → GYEONGNAM

경성대학교 KYUNGSUNG UNIVERSITY

→ GYEONGSEONG

고려대학교 KOREA UNIVERSITY

→ GORYEO

금오공과대학 KUMOH UNIVERSITY

→ GEUMO

「ㄷ」

단국대학교 DANKOOK UNIVERSITY

→ DANGUK

대신대학교 TAESHIN UNIVERSITY

→ DAESIN

덕성여대 DUKSUNG WOMEN'S UNIVERSITY

→ DEOKSEONG

동명대학교 TONGMYONG UNIVERSITY

→ DONGMYEONG

동의대학교 DONGUI UNIVERSITY

→ DONGUI UNIVERSITY

「ㄹ」

명신대학교 MYUNGSHIN UNIVERSITY

→ MYEONGSIN

명지대학교 MYONG JI UNIVERSITY

→ MYEONG JI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 ○

목포대학교 MOKPO UNIVERSITY

→ ○

「 ㅅ 」

배재대학 PAI CHAI UNIVERSITY

→ BAE JAE

부경대학교 PUKYONG UNIVERSITY

→ BUGYEONG

부산대학교 PUSAN UNIVERSITY

→ BUSAN

부산외국어대학 P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 BUSAN

「 ㅈ 」

삼척대학교 SAMCHOK UNIVERSITY

→ SAMCHEOK

선문대학교 SUN MOON UNIVERSITY

→ SEON MUN

성신여자대학교 SUNGSHIN WOMEN'S UNIVERSITY

→ SEONGSIN

순천대학교 SUNCHON UNIVERSITY

→ SUNCHEON

송실대학교 SOONG SIL UNIVERSITY

→ SUNG SIL

「 ㅇ 」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 YEONSE

원광대학교 WONKWANG UNIVERSITY

→ WONGWANG

우석대학교 WOOSUK UNIVERSITY

→ USEOK

위덕대학교 UIDUK UNIVERSITY

→ WIDEOK

인천대학교 INCHON UNIVERSITY

→ INCHEON

「 ㅈ 」

전북대학교 CHONBUK UNIVERSITY

→ JEONBUK

전주우석대학교 CHONJU WOOSUK UNIVERSITY

→ JEONJU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 JOSEON

중앙대학교 CHUNG-ANG UNIVERSITY

→ JUNG-ANG

진주교육대학교 CHINJU UNIV OF EDUCATION

→ JINJU

「 ㅊ 」

창원대학교 CHANGWON UNIVERSITY

→ ○

청운대학교 CHUNGWOON UNIVERSITY

→ CHEONGUN

청주대학교 CHONG JU UNIVERSITY

→ CHEONG JU

충신대학 CHONGSHIN COLLEGE

→ CHONGSIN

충주대학교 CHUNGJU UNIVERSITY

→ ○

「 표 」

평택대학교 PYEONGTAEK UNIVERSITY

→ ○

포항공과대학교 POHANG INSTITUTE OF SCIENCE & TECNOLOGY

→ ○

「 흥 」

한국외국어대학교 HANKUK UNIV OF FOREIGN STUDIES

→ HANGUK

한경대학교 HANKYONG UNIVERSITY

→ HANKYEONG

한려대학교 HANLYO UNIVERSITY

→ HALLYEO

한세대학교 HANSEI UNIVERSITY

→ HANSE

협성대학교 HYUPSUNG UNIVERSITY

→ HYEOPSEONG

라. 은행명

경남은행 KYONGNAM BANK

→ GYEONGNAM

국민은행 KOOKMIN BANK

→ GUKMIN

광주은행 KWANG JU BANK

→ GWANG JU

농협은행 NONGHYUP BANK

→ NONGHYEOP

대구은행 DAEGU BANK

→ ○

부산은행 BUSAN BANK

→ ○

수협은행 SUHYUP BANK

→ SUHYEOP

신한은행 SHINHAN BANK

→ SINHAN

우리은행 WOORI BANK

→ URI

전북은행 JEON BUK BANK

→ ○

제주은행 JEJU BANK

→ ○

하나은행 HANA BANK

→ ○

마. 신문사명

「 ㄱ 」

강원일보 KANGWEON ILBO

→ GANGWON

경인매일 KYEONGIN ILBO

→ GYEONGIN

광남일보 KWANGNAM ILBO

→ GWANGNAM

국민일보 KUKMIN ILBO
→ GUKMIN
국제신문 KOOKJE DAILY NEWS
→ GUKJE

「ㄷ」

대구일보 DAEGU ILBO
→ ○

대전일보 DAEJON ILBO
→ DAEJEON

동아일보 DONG-A ILBO
→ ○

동양일보 DONGYANG DAILY NEWS
→ DONGANG

「ㄹ」

매일경제신문 MAEIL BUSINESS NEWSPAPER
→ ○

무등일보 MOODEUNG ILBO
→ MUDEUNG

문화일보 MUNHWA ILBO
→ ○

「ㅅ」

부산일보 BUSAN ILBO
→ ○

「 ㅅ 」

서울신문 SEOUL SHINMUN
→ SEOUL SINMUN

세계일보 SEGYE TIMES
→ ○

스포츠서울 DAILY SPORTS SEOUL
→ ○

스포츠조선 SPORTS CHOSUN
→ JOSEON

「 ㅇ 」

영남일보 YEONGNAM ILBO
→ ○

인천일보 INCHEON ILBO
→ ○

「 ㅈ 」

전남일보 CHONNAM ILBO
→ JEONNAM

조선일보 CHOSUN ILBO
→ JOSEON

중도일보 JOONGDO ILBO
→ JUNGDO

중부일보 JOONG BOO ILBO
→ JUNG BU

중앙일보 JOONG-ANG ILBO
→ JUNG-ANG



「 ㅈ 」

충청투데이 CHUNG CHEONG TODAY

→ ○

충청일보 CHUNGCHONG ILBO

→ CHUNGCHEONG

「 ㅎ 」

한겨레신문 HANKYOREH SHINMU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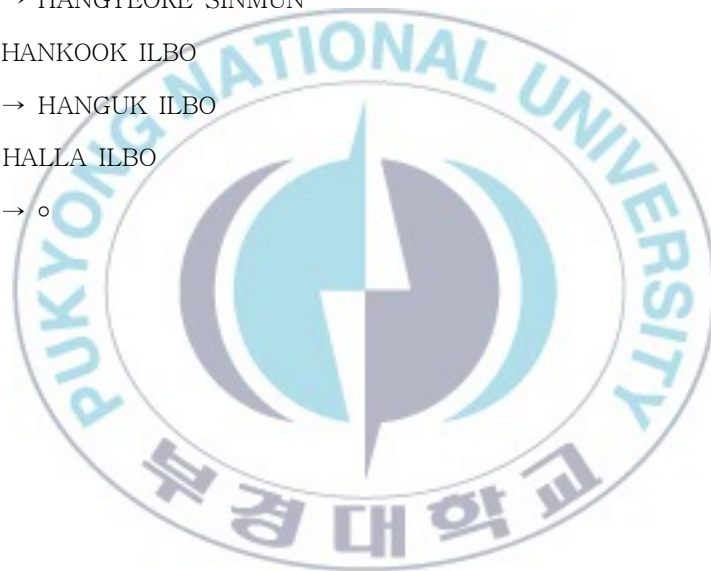
→ HANGYEORE SINMUN

한국일보 HANKOOK ILBO

→ HANGUK ILBO

한라일보 HALLA ILBO

→ ○



부록 2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전문(全文)

문화관광부 고시 제 2000-8호, 2000.7.7.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전문(全文)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제1장 표기의 기본 원칙

제1항 국어의 로마자 표기는 국어의 표준 발음법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항 로마자 이외의 부호는 되도록 사용하지 않는다.

제2장 표기 일람

제1항 모음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적는다

1. 단모음

ㅏ	ㅓ	ㅗ	ㅜ	ㅡ	ㅣ	ㅘ	ㅙ	ㅚ	ㅛ
a	eo	o	u	eu	i	ae	e	oe	wi

2. 이중 모음

ㅑ	ㅕ	ㅛ	ㅠ	ㅞ	ㅟ	ㅒ	ㅓ	ㅖ	ㅗ
ya	yeo	yo	yu	yae	ye	wa	wae	wo	we

[붙임 1] ‘ㅓ’는 ‘ㅣ’로 소리 나더라도 ‘ui’로 적는다.

(보기) 광희문 Gwanghuimun

[붙임 2] 장모음의 표기는 따로 하지 않는다.

제2항 자음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적는다.

1. 파열음

ㄱ	ㄲ	ㅋ	ㄷ	ㄸ	ㅌ	ㅍ	ㅂ	ㅃ	ㅍ
g, k	kk	k	d, t	tt	t	b, p	pp	p	p

2. 파찰음

ㅈ	ㅉ	ㅊ
j	jj	ch

3. 마찰음

ㅅ	ㅆ	ㅎ
s	ss	h

4. 비음

ㄴ	ㅁ	ㅇ
n	m	ng

5. 유음

ㄹ
r, l

[붙임 1] ‘ㄱ, ㄷ, ㅍ’은 모음 앞에서는 ‘g, d, b’로, 자음 앞이나 말에서는 ‘k, t, p’로 적는다.([] 안의 발음에 따라 표기

(보기) 구미 Gumi 영동 Yeongdong 백암 Baegam 호법 Hobeop
옥천 Okcheon 함덕 Hapdeok 한밭[한반] Hanbat
월곶[월곶] Wolgot 벚꽃[벚꽃] beotkkot

[붙임 2] ‘ㄹ’은 모음 앞에서는 ‘r’로, 자음 앞이나 어말에서는 ‘l’로 적는다.
단, ‘ㄹㄹ’은 ‘ll’로 적는다.

(보기) 구리 Guri 설악 Seorak 칠곡 Chilgok 임실 Imsil
울릉 Ulleung 대관령[대관령] Daegwallyeong

제3장 표기상의 유의점

제1항 음운 변화가 일어날 때에는 변화의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적는다.

1. 자음 사이에서 동화 작용이 일어나는 경우
(보기) 백마[뱅마] Baengma 신문로[신문노] Sinmunno
종로[종노] Jongno 왕십리[왕심니] Wangsimni
별내[별래] Byeollae 신라[실라] Silla

2. ‘ㄴ, ㄷ’이 덧나는 경우
(보기) 학여울[학녀울] Hangnyeoul 알약[알략] allyak

3. 구개음화가 되는 경우
(보기) 해돋이[해도지] haedoji 같이[가치] gachi
맞히다[마치다] machida

4. ‘ㄱ, ㄷ, ㅂ, ㅈ’이 ‘ㅎ’과 합하여 거센소리로 소리 나는 경우
(보기) 줄고[조코] joko 놓다[노타] nota
잡혀[자펴] japyeo 낳지[나치] nachi

다만, 체언에서 ‘ㄱ, ㄷ, ㅂ’ 뒤에 ‘ㅎ’이 따를 때에는 ‘ㅎ’을 밝혀 적는다.

(보기) 목호 Mukho 집현전 Jiphyeonjeon

[불임] 된소리되기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보기) 압구정 Apgujeong 낙동강 Nakdonggang 울산 Ulsan
죽변 Jukbyeon 낙성대 Nakseongdae 팔당 Palldang
합정 Hapjeong 셋별 saetbyeol

제2항 발음상 혼동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음절 사이에
불임표(-)를 쓸 수 있다.

(보기) 중앙 Jung(-)ang 반구대 Ban(-)gudae
세운 Se(-)un 해운대 Hae(-)undae

제3항 고유 명사는 첫 글자를 대문자로 적는다.

(보기) 부산 Busan 세종 Sejong

제4항 인명은 성과 이름의 순서로 띄어 쓴다. 이름은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음절 사이에 붙임표(-)를 쓰는 것을 허용한다.(()안의 표기를 허용함.)

(보기) 민용하 Min Yongha (Min Yong-ha)

송나리 Song Nari (Song Na-ri)

(1) 이름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화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보기) 한복남 Han Boknam (Han Bok-nam)

홍빛나 Hong Bitna (Hong Bit-na)

(2) 성의 표기는 따로 정한다.

제5항 ‘도, 시, 군, 구, 읍, 면, 리, 동’의 행정 구역 단위와
‘가’는 각각 ‘do, si, gun, gu, eup, myeon, ri, dong,
ga’로 적고, 그 앞에는 붙임표(-)를 넣는다. 붙임표(-)
앞뒤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화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보기) 충청북도 Chungcheongbuk-do 신창읍 Sinchang-eup

의정부시 Uijeongbu-si 봉천1동 Bongcheon 1(il)-dong

당산동 Dangsan-dong 퇴계로 3가 Toegyero 3(sam)-ga

삼죽면 Samjuk-myeon 종로 2가 Jongno 2(i)-ga

도봉구 Dobong-gu 양주군 Yangju-gun 인왕리 Inwang-ri

[붙임] ‘시, 군, 읍’의 행정 구역 단위는 생략할 수 있다.

(보기) 청주시 Cheongju 함평군 Hampyeong 순창읍 Sunchang

제6항 자연지물명, 문화재명, 인공 축조물명은 붙임표(-) 없이 붙여 쓴다.

(보기) 남산 Namsan 속리산 Songnisan 무량수전 Muryangsujeon

금강 Geumgang 독도 Dokdo 남한산성 Namhansanseong

경복궁 Gyeongbokgung 연화교 Yeonhwagyo 종묘 Jongmyo

극락전 Geungnakjeon 안압지Anapji 화랑대 Hwarangdae

불국사 Bulguksa 현충사 Hyeonchungsa 독립문 Dongnimmun

제7항 인명, 회사명, 단체명 등은 그동안 써 온 표기를 쓸 수 있다.

제8항 학술 연구 논문 등 특수 분야에서 한글 복원을 전제로 표기할 경우에는 한글 표기를 대상으로 적는다. 이때 글자 대응은 제2장을 따르되 ‘ㄱ, ㄷ, ㅂ, ㄴ’은 ‘g, d, b, l’로만 적는다. 음가 없는 ‘ㅇ’은 불입표(-)로 표기하되 어두에서는 생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기타 분절의 필요가 있을 때에도 불입표(-)를 쓴다.

(보기) 집 jib 짚 jip 박 bakk 값 gabs 붓꽃 buskkoch
먹는 meogneun 독립 doglib 문리 munli 물엿 mul-yeos
굳이 gud-i 좋다 johda 가곡 gagog 조랑말 jolangmal
없었습니다 eobs-eoss-seubnida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표지판 등에 대한 경과 조치) 이 표기법 시행 당시 종전의 표기법에 의하여 설치된 표지판(도로, 광고물, 문화재 등의 안내판)은 2005. 12. 31.까지 이 표기법을 따라야 한다.
- ③ (출판물 등에 대한 경과 조치) 이 표기법 시행 당시 종전의 표기법에 의하여 발간된 교과서 등 출판물은 2002. 2. 28일까지 이 표기법을 따라야 한다.